

2020 JUNE VOL.388

독립기념관

● THE INDEPENDENCE HALL OF KOREA MAGAZINE

우리의 독립 문제는
군사가 아니면 해결 불능이요
군사운동은 통일이 아니면
난망이라.

- 군사통일회의 선언서

독립기념관 캠핑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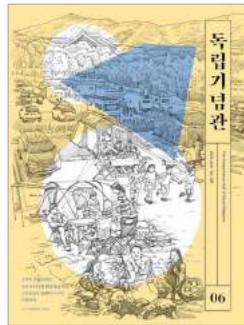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독립기념관 캠핑장은
건전한 여가 즐진을 위해 마련된 시설입니다.
카라반 구역인 대한존과 텐트를 이용할 수 있는
독립·통일·만세존(숲속 목재 데크 구역) 등
총 104개 사이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기 사용이 가능해 밤에도 캠핑을 즐길 수 있습니다.

독립기념관

The Independence Hall of Korea Magazine

2020 June Vol. 388

06



Coverstory

신록의 계절이 무르익고
계절을 머금은 별이
따사로이 빛날 때, 우리는
독립된 자연의 품 안에서
일상의 풍요로움을 기대합니다.

일러스트: 오현균 작가

※ 본문에 실린 외부 접필자의 글은 독립기념관의
공식적인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매품)

※ 월간 「독립기념관」은 독립기념관 홈페이지
(www.i815.or.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www.i815.or.kr

발간등록번호 11-B370008-000001-06

ISSN 1227-5883

등록일 1988년 3월 19일·천안라00001

발행일 2020년 6월 1일

발행처 독립기념관

발행인 이준식

편집인 신용관

편집 신하운(sunny@i815.or.kr)

편집위원 이봉근, 고명재, 구병준, 노지은, 박성섭, 염진일, 이선화, 이정희, 정경민, 허미애

시간의 증언

04 오늘을 여는 풍경

피와 맞바꾼 독립

06 영웅의 史물

위안부 할머니의
미술 선생이 그린 그림

08 그때 그 역사

미주 최초의 독립군단
대조선국민군단

12 밑줄을 긋다

독립군 양성에 힘쓰다

14 끝나지 않은 독립운동

역사의 실마리

14 끝나지 않은 독립운동

반민특위 습격사건,
한국 현대사의 해악

16 아름다운 인연

국경을 초월한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의 인생 항로

20 이달의 독립운동가

간도와 연해주를 오가며
독립전쟁에 참여하다
임병극

24 한국인의 터전: 미주 편

구미위원회의 설립과 활동(I)

26 역사 바로알기

교육 현장에 스며든
학습의 잔재

28 절체절명의 한국사

여진족과의 대결

세상의 발견

31 기념관 소풍

조상들의 풍찬노숙 의미를
실감한 체험

32 이 땅의 숨결

십승지지를 찾아서
생거 부안

36 영화관에서 만난 역사

승리의 역사
아쉬운 재현

38 신조어 사전

키워드로 보는
코로나 소통법

40 일상 돋보기

결혼 39년 만에 처음 받아본 꽃바구니 /
판다곰에서 시작된 이야기

44 기념관 소식





피와

맞바꾼

독립

그 시절 우리는
억압당할수록 움트고 있었습니다.
지켜야 했습니다. 민족과 나라를.
그렇게 나라 빼긴 설움은
농부와 학생을 군인으로 만들었습니다.

땅과 얼을 되찾기 위해선
강해져야 했습니다.
빼앗긴 국권을 찾기 위해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5년간
일본에 무력으로 항쟁하였고,
어떠한 치욕 앞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역사상 길이 남을 그날의 투쟁과
피로 맞바꾼 전사들의 독립정신은
가슴 깊이 빛나고 있습니다.
영광의 피로 되찾은 이 땅에서
값진 자유를 누리는 우리 가슴에는
아직도
뜨거운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어린 소녀
87.00 × 187.00cm
이경신 기증

위안부 할머니의 미술 선생이 그린 그림



일본 현병에게 끌려가는 소녀
148.00 × 134.00cm
이경신 기증



위안부로 희생된 할머니 모습
90.00 × 107.50cm
이경신 기증

1993년부터 1997년까지 5년 동안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미술 선생이었던 이경신 작가의 작품이다. 이경신 작가는 미술 대학을 졸업한 후 할머니들이 모여 사는 나눔의 집을 찾아가 자원봉사로 미술 수업을 했다. 할머니들은 그림을 그리며 내면의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고통을 예술로 승화시켰다. 그림에는 과거의 끔찍한 상처를 스스로 치유하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본질을 증언하는 할머니의 당당한 삶의 모습이 담겨있다. 이경신 작가는 할머니들과 함께한 미술 수업 이야기를 『못다 핀 꽃』이라는 책에 담기도 했다. 할머니들이 상처와 절망을 극복하기 위해 했던 모든 노력과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림을 그리며 말하고자 한 바를 전하려고 했다.

미주 최초의 독립군단

대조선국민군단

독립군 양성과 활약

2020년은 봉오동전투와 청산리전투가 일어난 지 꼭 100년이 되는 해이다. 1920년 6월, 10월 일어난 두 전투는 1933년 대전자령전투와 함께 '독립군의 3대 대첩'으로 일컬어진다. 봉오동전투는 독립운동사에서 일제와 싸워 최초로 승리한 전투이고, 청산리전투는 최고의 전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두 전투를 승리로 이끈 요인 중 하나는 전문적인 군사훈련을 받은 독립군의 활약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한인소년병학교, 해외 최초의 군사학교

지금까지 독립군을 체계적으로 양성한 군사훈련 기관은 1911년 설립된 신흥무관학교의 전신인 '신흥강습소'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보다 앞서 독립군 양성을 먼저 주창하고 실천한 그룹이 있다. 그들은 한국과 가까운 만주나 러시아가 아니라 한국으로부터 10,000km 이상 떨어져 있던 미주 한인들이었다.

미주에 한인사회가 형성된 것은 1903년부터 1905년까지 한인들이 하와이 사탕 농장 노동자로 이민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7,000여 명이 자리 잡은 미주 한인 중 가장 먼저 독립군 양성을 추진한 사람은 박용만이다. 박용만은 이승만, 안창호와 함께 미주 한인사회 3대 지도자이자 항일무장투쟁론을 주장한 대표적 인물이다.

1905년 2월 미국에 도착한 박용만은 네브래스카주에 자리를 잡고 군사학교 설립을 서둘렀다. 네브래스카주에 자리 잡은 이유는 이 지역 공립고등학교와 주립대학은 군사교육과 간부후보생(ROTC) 훈련 과정이 의무로 되

어 있어 군사훈련을 실시하기에 적합하였기 때문이다.

1908년 7월 박용만은 '애국동지대표회'를 개최하고 미주·하와이·러시아 등지에서 파견된 대표자들과 국내외 통일 기관을 조직하고 군사학교 설립 안을 의결하였다. 이 의결을 근거로 1909년 6월 네브래스카주에 해외 최초의 한인군사학교인 '한인소년병학교(Military School for Korean Youth)'를 설립하였다. 한인소년병학교는 총 3년 과정으로, 여름방학 때 입소하여 8주 동안 군사훈련을 받는 하계 군사훈련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다. 6년 동안 운영된 한인소년병학교는 170여 명의 학생을 배출하였다.

그러나 일본총영사의 항의 등으로 1914년 문을 닫고 말았다. 한인소년병학교는 만주의 신흥강습소는 물론 북미·하와이·멕시코 한인사회에도 영향을 끼쳤고, 1910년 해외 한인의 군인양성운동 확산에 기폭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이 학교는 단기 군사훈련으로 운영되었다는 점에서 정규 군사학교와는 차이가 있다.



대조선국민군단 사격훈련(하와이 호놀룰루)

미주에서 일어난 군인양성운동

1910년 8월 일제의 한국강점 소식이 미주에 전해졌다. 미주 대한인국민회(1909년 2월 창립, 1910년 5월 개칭)는 북미와 하와이에서 각기 공동대회를 개최하여 '애국동맹단'과 '대동공진단'을 조직하고 항일운동방침을 결의하였다. 두 단체는 전보로 한국 황제에게 '강제병탄' 거절을 요구하는 한편, 일왕에게도 합방 취소를 촉구하였다. 이어 만주와 러시아 등지에서 독립전쟁을 전개할 사관생도 양성을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무예장려문을 발표하고 『체조요지』를 출판·배포하는 등 군사훈련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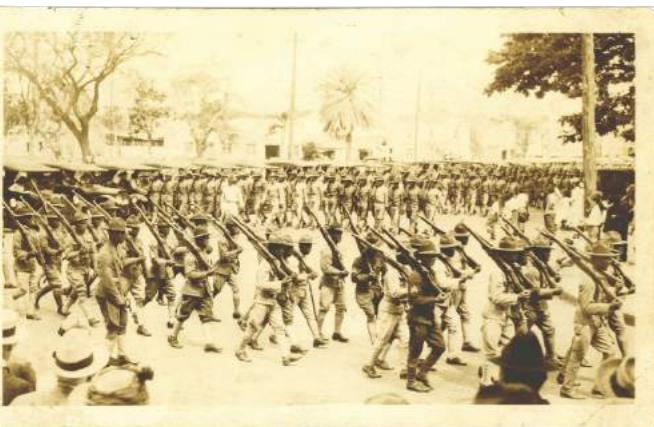
북미에서는 1910년 10월 대한인국민회가 운영하는 클레어몬트 학생양성소에 '군사훈련반' 설치, 룸폭에 '의용훈련대', 11월 캔자스에 '소년병학원', 12월 와이오밍주 슈페리오에 '청년병학원'이 조직되어 매일 저녁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등 군인양성운동이 전개되었다. 하와이에서도 각 지역에 군인양성소를 조직하고 군사훈련을 시작하였다. 군인양성소 설립 후 1910년 11월에는 대동공진단이 군인양성소를 대한인국민회 하와이지방총회로 이관하였다. 하와이지방총회는 '연무부'를 조직하여 하와이 각 지역에 다수의 한인들이 거주하는 곳에서 한인 청년들을 중심으로 매일 저녁에 목총을 메고 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때 군사훈련에 참가한 한인들은 200여 명에 이르렀다.

대조선국민군단 병영 낙성식 기념(19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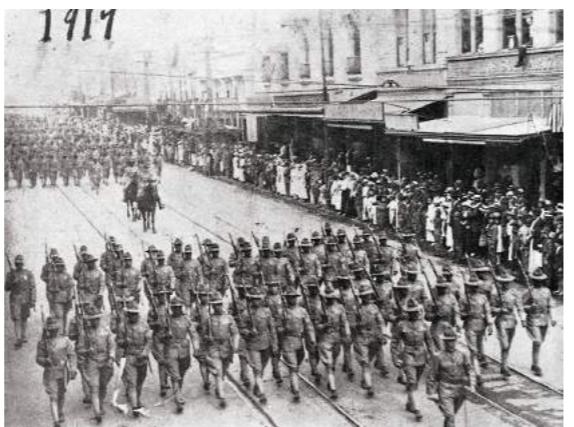


미주에서 처음으로 독립군 양성을 추진한 박용만





대조선국민군단 행진(하와이 호놀룰루)



대조선국민군단 시기행진(호놀룰루, 1917)

하와이에 설립된 대조선국민군단

박용만은 1912년 하와이지방총회 기관지인『신한국보』주필로 부임하였다. 그는 하와이지방총회 연무부 사업으로 추진하던 군인양성운동을 체계화하였다. 1913년 12월 하와이 한인 지도자들과 독립전쟁을 수행할 독립군단과 사관학교 설립을 합의하였다. 그 결과 1914년 6월 하와이 오하우섬 카홀루에 '대조선국민군단(이하 국민군단)'을 창설하고 군단 산하에 '대조선국민군단사관학교(Korean Military Academy, 이하 사관학교)'도 설치하여 독립군 양성을 본격화하였다.

국민군단과 사관학교의 운영과 재정은 연무부에서 담당하였다. 박종수와 안원규 등은 1,500에이커에 달하는 농장 부지를 기부하였다. 그 규모는 300~400명의 군인을 수용할 수 있는 크기였다. 이를 기반으로 박용만은 하와이 군사령부로부터 군단 설립을 정식으로 인가받았다. 국민군단과 사관학교의 편제는 미국 군대를 모방한 근대적 군사조직이었다. 국민군단은 크게 군단, 병학교, 훈련소로 구성되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제복소, 별동대, 곡호수, 고수 등이 별도로 조직되었다. 군단은 사령부와 경리부로, 훈련소는 대대, 중대, 소대로 구성되었다. 박용만은 군단사령부 단장이자 병학교 교장을 맡았고, 박종수는 병학교 대대장이자 훈련소 대대장을 맡아 활동하였다. 별동대는 후일 대한민국임시정부 군무총장을 역임한

노백린이 맡았다.

100여 명으로 시작하여 많을 때는 300여 명에 이르렀던 국민군단은 이름 그대로 '국민군'이라는 이름으로 군단을 조직하려는 것이었고, 사관학교는 군단의 핵심이 될 사관을 양성하는 기관이었다. 국민군단 임원들은 군단에 기숙하면서 농장에서 노동을 하였고, 틈틈이 군사훈련과 학습을 실시하였다. 사관학교 학생들도 야외에서는 군사 훈련을 받고, 교실에서는 군사학을 공부하였다. 다만 하와이 군사령부가 실제 군총 사용을 불허하자 군사훈련 때는 목총을 사용하였다.

사관학교의 교과 내용은 한인소년병학교의 교과 과정을 발전시킨 것이었고, 교재는 28종에 달하였다. 특히 1911년 박용만이 역술·간행한『군인수지』는 사관학교의 주요 교재로 사용되었다. 국민군단과 사관학교에서는 박용만이 직접 작사한「국민군가」와「조선국가」를 애창하였다. 「국민군가」 가사는 후일 만주等地에서 독립전쟁을 전개하기 위한 독립군 양성의 포부를 드러낸 것이었다.

흑룡강 맑은 물

남북만주 푸른 풀 넓은 들

우리 말 안장 벗겨라

국민군 군가 부르세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과 제정 러시아가 연합국에 가담하면서 국제 정세에 변화가 일어났다. 일본은 연합국의 일원으로 미국과 친밀한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미국에 국민군단의 활동 중단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시기 외교론에 중점을 둔 이승만 세력과 무장투쟁론을 실천하려던 박용만 세력이 대립하자, 일제는 이 내분을 이용하여 박용만을 제거할 계획을 세웠다.

1915년 여름 일제는 주미 일본공사관을 통해 미국 국무장관에게 박용만의 군사 활동을 강력히 항의하였다. 일제의 항의를 받은 미국 국무장관은 내무부에 엄중 조사를 요구하였다. 미국 내무부는 다시 하와이 총독에게 박용만 등 국민군단 간부들의 무기 소유 여부, 일본에 대한 반일 선동 여부를 조사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하와이 정부는 대한인국민회 하와이지방총회에 승인하였던 특별경찰권을 취소하여 하와이 한인사회에 자치권을 박탈하였다. 이외에도 국민군단은 경제적으로도 곤란을 겪었다. 국민군단은 병농일치를 바탕한 둔전제를 기본 원리로 운영되었다. 그런데 이즈음 파인애플 농장의 불경기와 흉작 등으로 수입이 크게 감소되어 국민군단에서 사용하던 농장

계약이 만기되어도 연장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1916년 농장주의 압력으로 계약을 취소당해 1917년경 문을 닫게 되었다.

대조선국민군단 이후

1919년 3월 박용만은 호놀룰루에서 '대조선독립단' 하와이지부를 설립하였다. 대조선독립단은 국내와 중국 등지의 독립군단과 통일을 꾀하기 위해 박용만이 통일군사정부를 염두에 둔 조직이었다. 이후 박용만은 러시아로 가서 대한국민군을 조직하고 국내외에 국민군을 조직하기 위해 힘썼다. 그러나 국내에 조직한 국민군이 일제에게 밭각되는 바람에 국민군 조직도 실패로 돌아갔다.

이에 박용만은 1920년 다시 중국 베이징으로 거점을 옮겨 '군사통일회'를 조직하고 만주와 러시아에 사관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다시 움직였다. 이때 대조선독립단에서는 국민군단 시절 적립하였던 20,000여 달러를 재정 후원하면서 박용만의 항일무장투쟁 활동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활동도 1928년 10월 박용만이 피살됨으로 인해 끝내 빛을 보지 못하였다.

하와이 호놀룰루에 있는 대조선국민군단 사관학교(1914)



독립군 양성에 힘쓰다

독립군을 양성한 군사훈련기관 — 미주, 만주 등지에서 독립전쟁을 전개하기 위해 독립군 양성

1909년 6월

한인소년병학교

- 미주 한인사회 3대 지도자 중 한 명인 박용만 추진
- 해외 최초의 한인군사학교
- 6년 동안 170여 명의 학생 배출

1910년 7월

대한인국민회 '애국동맹단', '대동공진단'

- 1909년 2월 창립한 미주 국민회 추진
- 만주와 러시아 등지에 독립전쟁 전개할 사관생도 양성 의결
- 무예장려문 발표 및 『제조요지』 출판·배포 등 군사훈련 실시

독립군 양성에 앞장선 인물



박용만(1881~1928)

독립운동가, 강원도 철원 출신

독립운동 초기를 대표하는 독립운동가로,
1909년 한인소년병학교를 설립해
무장훈련을 하고 독립전쟁을 준비하였다.
이어 7,000여 명의 한인이 살고 있던
하와이로 건너가 1914년 '대조선국민군단'을
창설하고 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

1911년 6월

신흥강습소

- 독립군을 체계적으로 양성

1910년 10월

대한인국민회 '군사훈련반', '의용훈련대'

1910년 11월

대한인국민회 '소년병학원'

1910년 12월

대한인국민회 '청년병학원'

1920년

군사통일회

- 만주와 러시아에 사관학교 설립을 꾀했으나,
1928년 10월 박용만의 피살로 활동 종료

반민특위 습격사건,

한국 현대사의 해악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이달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는 현충일이 있고, 6·25전쟁, 제2연평해전에서 목숨을 잃거나 희생된 분들을 기념하고자 하는 데 의미가 있다.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국민들이 자유와 평화를 만끽할 수 있는 것은 그분들의 숭고한 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기 때문이다.

친일 민족 처벌 위한 반민특위 설치

우리에겐 역사의 본보기로 삼아야 할 중요한 사건이 있다. 지금으로부터 70여 년 전의 일이다. 하나는 1949년 6월 26일 김구가 안두희 총에 맞아 사망한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그 이전인 6월 6일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가 과거 친일 경찰들에 의해 습격을 당한 사건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이승만 정권이 출범한 지 1년이 가까이 될 무렵이었다. 두 사건은 두 개처럼 보이지만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반민특위는 1948년 9월 일제강점기 친일 민족 반역자를 처벌하기 위해 제헌국회가 제정한 '반민족 행위 처벌에 관한 특별법(이하 반민법)'에 의해 조직되었다. 반민법은 제헌헌법 부칙 제101조 "단기 4278년(1945년) 8월 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행위자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조항에 근거하였다. 그 뒤 특별조사위원회를 시작으로 특별재판부, 특별검찰부가 조직되어 1948년 10월 22일 반민특위(위원장 김상덕)가 설치되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순탄치 못했다. 친일파들의 조직적이고 권력을 앞세운 저항이 만만치 않았던 것이다. 반민법 공포 그날 우익단체 한국반공단(단장 이종형)은 '반공구국 총궐기 국민대회'를 열어 반민법을 주도한 소장파를 성토하였고, 친일 경찰 출신 노덕술·최난수 등은 반민법 제정을 주도한 의원들을 납치·살해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위협에 특위·특별검찰부 조사위원, 검찰관·조사관 등의 신변을 보호하고자 특경대가 설치될 정도였다. 그런데도 반민특위 요인의 협박과 테러 행위는 다양한 방식으로 자행되었다. 이승만 정부는 예산 배정과 사무실 미배정 등으로 반민특위의 발목을 잡았으며, 조사에 필요한 자료 요청도 거부하기 일쑤였다.

이승만 정권의 반민특위 왜해 작전

1949년 1월 특별조사위는 화신재벌 친일파 박홍식을 필두로 최린·이종형·이승우·노덕술·박종양·김연수·문명기·최남선·이광수·배정자 등을 체포하였다. 이에 이승만은 1949년 1월 <반민족행위처벌법> 시행 최소화 담화를 발표하고 그해 7월까지 국무회의에서 11회에 걸쳐 반민법 개정 논의를 거쳐 그 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반민법 개정 요구는 특별검찰부·특별재판부 및 특경대를 폐지하는 것이었지만 궁극적으로 반민특위 자체를 왜해시키고자 한 것이었다.

그해 2월에 이승만은 '반민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담화를 발표하는가 하면, 4월에는 '공소시효' 단축안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특히 이승만은 친일 경찰 출신의 경찰 간부들이 구속되면서 정치적 위기에 내몰리자 "서울시 수사국장 노덕술을 치안 기술자"라며 정부가 보증해서라도 석방토록 하는가 하면 그를 체포·구금한 특별조사위원회 관계자의 의법을 처리하라고 지시하였다. 5월에는 반민특위 활동에 앞장선 국회의원 3명을 남로당의 프락치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검거하였다(제1차 국회프락치사건). 6월에 접어들면서 이승만 정권은 반민특위를 왜해시키기 위한 총공세를 펼쳤다. 우익단체 국민계몽대는 '빨갱이 의원' 성토대회를 개최하고는 특별조사위원회로 몰려

가 건물을 에워싸고 "공산주의자가 이 안에도 있으니 빨리 나와라", "반민특위 내 공산당을 숙청하라"며 사무실로 침입하여 하였다. 위험에 처한 반민특위 직원들이 중부경찰서에 연락했지만 소용없었다. 반민특위가 나서서 6월 4일 배후 인물들을 체포·수감하자, 다음날 서울시경은 비상경계에 들어갔고 경찰국 산하 사찰과 직원 440여 명은 신분 보장을 요구하며 사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등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반민특위와 경찰 당국이 정면충돌하는 양상이었다.

1949년 6월 6일 오전 8시, 서울시 중부경찰서 서장 윤기병의 지휘 아래 40여 명의 사복경찰들이 반민특위 사무실을 습격하였다. 특별조사위원·조사관·특별검찰관·특별재판관 등의 가택수색까지도 이뤄졌다. 특경대장 등 대원 30여 명이 중부서로 체포되었고 특별검찰관과 총장이 몸수색을 당했다. 사복경찰들은 특별재판부에서 투서·진정서철, 반민자 죄상 조사서, 출근부 등을 압수해갔다. 이른바 반민특위 습격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이는 이승만 정권이 반민특위를 왜해시켜 친일파 숙청을 원천 봉쇄하려는 극단적 대응이었다. 특경대의 무장해제는 명분에 불과했다.

반민특위 해체 후 독재 정권 등장

반민특위 습격사건 이후 정국은 극단적인 반공 정국으로 빨려 들어갔다. 반민특위 습격사건을 지휘한 내무차관 장경근은 연행한 특경대원·사무직원들에게 "반민특위는 빨갱이의 소굴이다", "너희들은 언제 남로당에 가입했느냐"며 이를 기정사실화하였다. 이런 가운데 6월 22일 국회부의장 김약수 등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거되는가 하면(제2차 국회프락치사건), 반민특위 활동을 적극 지지하며 친일파 숙청에 강경 발언을 쏟아 냈던 김구가 1949년 6월 29일 암살되었다. 이후 반민특위 활동은 급속히 위축되었고 왜해 절차가 진행되었다.

1950년 6월 20일로 규정된 공소시효는 1949년 8월 31일로 앞당겨졌고 반민 피의자의 조사와 체포는 급격히 줄었다. 특별검찰부는 공소시효 마감일에 상당수의 반민 피의



자를 기소유예 석방하여 특검 업무를 종료했다. 특별재판부는 9월 23일부터 보석 및 구류 취소 등으로 업무를 종료하였다. 더욱이 반민특위의 폐기 법안이 통과되면서 민족 반역자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해졌다. 또한 1951년 2월 '반민족 행위 재판기구 임시조직법'이 폐지되어 공소 계속 중인 사건은 모두 '공소 취소'되었고 반민법에 의한 판결도 모두 효력을 상실하였다. 반민특위는 어렵게 조성된 민족정기를 살릴 기회를 상실한 채 시효 만료로 문을 닫고 말았다. 이로써 민족정기는 굴절되었고 이승만을 정점으로 하는 친일 반민족 세력이 재등장하고 독재 권력을 낳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사회갈등지수가 OECD 국가 가운데 2위에서 4위 정도로 아주 높다. '갈등 공화국'이라 말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생기는 갈등 비용은 한 해 82조 원에서 246조 원에 이른다는 분석도 있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은 지역·이념·빈부·남녀·세대 간에서 비롯된 것이다. 민주화 이전엔 지역 갈등이 커지만 지금은 이념 갈등이 제일 크다. 이는 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 간의 대립에서 기인한 것인데 친일 문제도 한몫한다. 반민특위 습격사건은 그 불씨가 되었고 결국 반민특위를 좌절시켰다. 결국 민족 양심과 사회정의, 나아가서는 민족정기의 패배를 가져다주었다는 점에서 한국 현대사에 커다란 해악을 끼쳤다.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



영화 <박열> 포스터

국경을 초월한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의 인생 항로

1920년대 일본에서 독립운동을 펼친 박열.

일본 유학생들이 펴낸 잡지 「조선청년」에
‘나는 개새끼로소이다’라고 시작되는 박열의 시가
실렸고, 그 시를 본 가네코 후미코는 그에게 반해
고백하게 된다. 그렇게 그들은 운명적인 사랑을
시작함과 동시에 평생의 동지가 된다. 그러나 1923년
칸토대지진 당시 일본 왕세자를 폭살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아 역사적인 재판을 받게 된다.

영화로 역사 무대에 새롭게 등장하다

몇 년 전 영화 <박열>이 개봉되어 시민들에게 커다란 울림을 주었다. 자유로운 영혼으로 일제에 저항하다가 22년간 옥살이를 한 혁명가 박열과 그의 연인이자 영원한 동지인 일본인 가네코 후미코(金子文子)에 관한 이야기였다. 기묘한 인생여정은 사람들에게 관심과 호기심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했다.

기모노를 입고 빼딱하게 의자에 앉은 남자와 그 무릎 사이에 비스듬히 앉아 무언가를 읽고 있는 여자의 모습은 충격적이다. 요즘에는 별로 신기한 장면은 아니나 약 100년 전에 사진이라는 사실에서 너무나 자유분방함을 그대로 보여준다. 더군다나 여자의 목덜미를 돌아 가슴에 놓인 남자의 손을 보면 더욱 그러하다. 남녀의 도발적인 자세는 어쩌면 일제 당국자를 비웃듯 의식적으로 연출하였다.

한국에서 생활하다가 일본으로 돌아가다

가네코는 1903년 1월 일본의 요코하마에서 출생하여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부모의 불화로 제때 호적에 이름조차 올리지도 못했다. 소학교 입학은 물론 마음대로 다닐 수 없는 고단한 삶이었다. 여덟 살 때 충북 청주에 사는 고모 양녀로 들어갔으나 사실상 하녀와 같은 힘든 나날을 보냈다. 정이 많은 한국인을 대하면서 가슴 찡한 감정을 느끼곤 했다. 3·1운동 당시 학대받던 한국인을 생각할 때면 연신 눈물을 흘렸다. 한국에서 지옥 같은 7년을 보내고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야 하는 처량한 신세였다. 가네코는 고향에서 냉대 속에서 살았다. 이에 도쿄로 올라가 신문팔이, 인쇄소 직공, 식모 등의 일을 전전하였다. 어려운 처지에도 고학생들을 만나면 한없이 맑은 모습이었다. 그렇지만 마음속으로 불우하고 가난한 사람은 열심히 공부해도 큰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엄연한 현실을 알았다. 어린 시절부터 온갖 착취를 경험하면서 힘을 가진 강자에 대한 경멸은 점점 대담한 행동으로 이어졌다.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다

박열은 1902년 2월 경북 문경군 호서남면의 가난한 농가에서 1녀 3남 중 막내로 태어났다. 고향에서 공립보통학교를 수학한 후 일제강점기 최고의 명문인 경성고등보통학교에서 입학했다. 시골 출신의 경성고보 입학은 흔히 “개천에서 용 났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자신은 물론 집안의 대단한 경사였다. 가난한 형편에도 공부에 열중하는

그는 빈한한 집안을 일으킬 ‘희망봉’이었다.

재학 중 3·1운동에 연루되어 경성고보를 퇴학한 후 귀향하여 문경에서 친구들과 함께 4월 중순까지 만세시위를 이끌었다. 이러한 와중에 친구들로부터 일제의 가혹한 고문 소식을 전해 들었다. 향후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하기 힘들다는 판단 아래 일본으로 건너갔다. 이후 학업과 노동을 병행하며 이른바 ‘불령선인(후테이센진)’들과 자주 어울렸다. 틈틈이 세이소쿠(正則) 영어학원에도 다니면서 사회 경제도 파악했다.

운명적인 만남으로 굳건한 동지가 되다

이곳에서 반제국주의 자유사상을 가진 여성 가네코를 만난게 되었다. 그녀는 오뎅집에 일하면서 재일유학생들을 만났으며, 우연히 박열의 자작시를 읽고 강한 감동과 함께 그를 흡모하게 되었다. 박열의 <개새끼>라는 시는 가슴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다.

나는 개새끼로소이다.

하늘을 보고 짖는

달을 보고 짖는

보잘것없는 나는

개새끼로소이다.

박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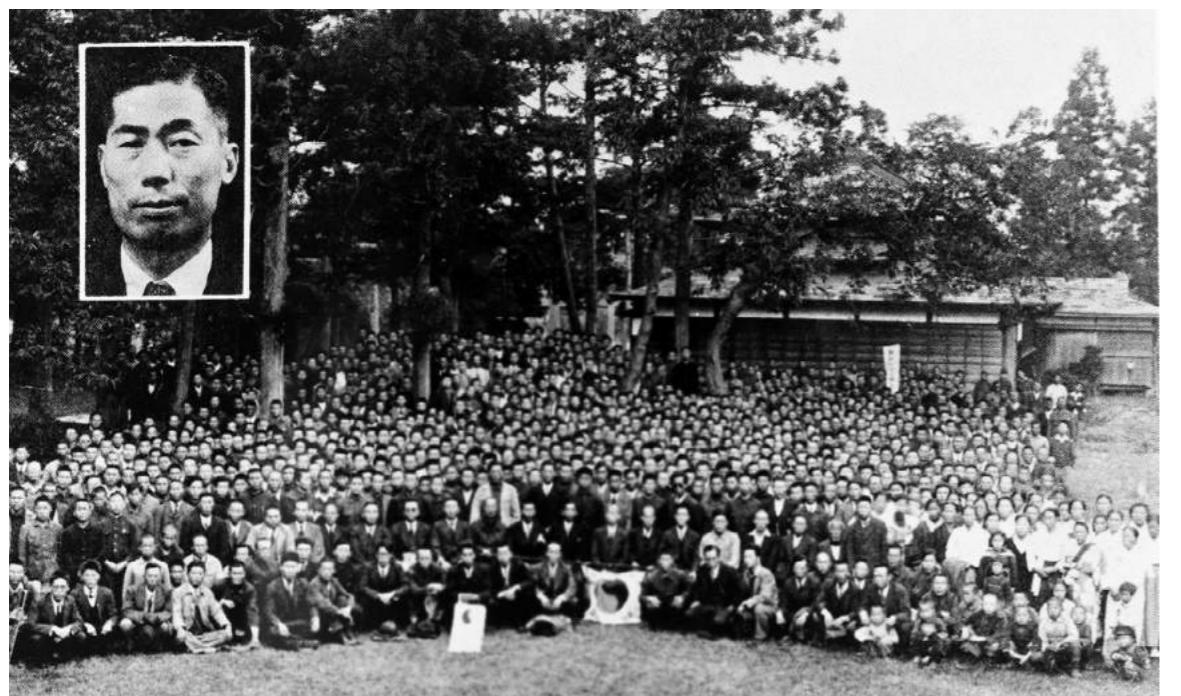
가네코 후미코



높은 양반의 가랑이에서
뜨거운 것이 쏟아져 내가 목욕을 할 때
나도 그의 다리에다
뜨거운 줄기를 뿜어대는
나는 개새끼로소이다.

여러 번 시를 읽고 읽어 틈이 날 때마다 낭송했다. 그럴 때마다 환상 속의 주인공을 자연스럽게 그리는 일이 빈번해졌다. 시를 쓴 박열이라는 주인공과 만남을 설레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기다렸다. 가네코는 “만약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면 서로 교제하자”고 단숨에 사랑을 고백하였다. 강자에게 대한 반감과 허무주의자를 자처하는 자유분방한 박열이 마냥 좋았다. 곧바로 동지로서 함께 살기 위하여 동거 생활을 시작한다. 별다른 거리낌이나 망설임이 전혀 없었다. 굳건한 동지적인 결합이 이루어지는 순간을 맞았다.

박열 출옥 환영대회(아키타현 1945. 10. 27.)



잡지 발행으로 자신들의 신념을 알리다

당시 여명회·코스모 구락부·자유인연맹 등의 강연회 참여는 반제 자유사상과 아나키즘에 크게 공명하는 계기였다. 우선적인 과제는 자유를 향한 실천적인 행동 중 하나는 잡지 간행이었다. 조직·규율·권위를 거부하는 아나키즘을 표방한 잡지 발행에 중점을 두었다. 1922년에는 동지들과 함께 『뻔뻔스러운 조선인(太い鮮人)』을 만들었다. 일본이 말하는 불령선인이 조금도 무례하고 뻔뻔하지 않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었다.

이듬해에는 아나키스트 항일단체인 불령사(不逞社)를 조직해 노동쟁의 후원과 민중강연회 참가 등의 대중활동을 펼쳤다. 불령사 설립 목적은 권력에 대한 저항을 주요한 목적으로 삼았다. 박열이 비밀리에 진행한 폭탄 입수도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려던 의도였다. 일본 ‘왕세자’ 결혼식장에 폭탄을 던지려는 계획은 칸토대지진으로 실행할 수 없었다. ‘선량한 한인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수

천 명이 강제 연행될 때 이들도 검속되었다. 1923년 10월부터 1925년 6월까지 총 21회에 걸친 혹독한 신문조사를 받았다. 조사 과정에서 일왕을 폭살하기 위해 폭탄을 구입하려 했다고 당당히 밝혔다.

옥중 투쟁에서 당당하게 자신들 주장을 밝히다

조선의 사대관모와 관복을 입고 법정에 출두해 반말투로 일왕의 죄를 밝혔다. 옥중에서 작성한 선언문인 <음모론>, <나의 선언>, <불령선인으로부터 일본 권력자 계급에게 준다>는 글을 낭독하는 법정투쟁을 벌였다. 1926년 3월 공판에서 이들은 사형을 선고받았다. 가네코는 판결 순간 “만세”를 외치며, “모든 것이 죄악이오. 허위요. 가식이다”라고 소리쳤다. 10일 만에 특별감형으로 무기징역으로 감행되었다.

이들은 사형선고 1개월 전에 혼인서를 제출함으로써 영원히 삶과 죽음을 함께 하고자 결심하였다. 변론을 맡았던 후세 다츠지(布施辰治) 변호사는 선고 공판을 앞두고 옥중에서 혼인신고를 대신해 주었다. 둘은 역설적이지만 도쿄형무소에서 합법적인 부부가 되었다. 얼마 후 부부는 각각 지바형무소와 도치기형무소로 옮겨짐에 따라 이별해야 하는 운명이었다. 가네코는 가혹한 자신의 상처와 자유사상을 『무엇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가』라는 책자에 고스란히 담았다.

자유를 향한 열정으로 동지애를 발휘하다

그러던 중 1926년 7월 23일 가네코의 자살 소식이 전해졌다. 자살의 원인이나 방법도 알려지지 않은 타살의 의문 속에 시신은 교도소 측에 의해 서둘러 매장되었다. 재판 과정에서 “혹시 판결이 어긋나서 당신만 사형선고를 받는 일이 있더라고 나는 반드시 같이 죽을 것이요. 당신 훌로 죽게 만들지 않겠다”고 말했던 가네코이기에 죽음은 안타까울 수밖에 없었다. 유골은 옛 흑우회 동지들의 노력으로 발굴되어 우여곡절 속에서 4개월 만인 11월 5일 박열의 고향 선산인 문경군 팔령산(八靈山)에 묻혔다.



박열 귀국 환영 기념(1948. 8. 17.)

이들 부부에게는 적지 일본에서 한국의 청년들과 함께 한 생애 마지막 몇 년이 가장 설레는 나날이었다. 가네코는 훌로 있는 감옥에서 다음과 같은 시를 남겼다.

여름밤 어슬렁어슬렁 모여든 짧은이들
그 모임을 생각하면 나도 그곳에 가고 싶어진다.
하얀 깃, 짧은 겹옷에 형틀어진 머리카락
나와도 잘 어울리는 벗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벗의 유필(遺筆)을 곰곰이
떠올려 보아도, 생각나지 않네 벗이 한 말
벗과 둘이서 일자리 찾아 헤맸지
여름날 긴자(銀座)의 돌길이여

1945년 12월 6일 도쿄에서 박열 석방을 환영하는 대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 옥중에서 박열을 감시했던 형무소 주임인 후지시다 이사부로(藤下伊一郎)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연설을 하였다. 1946년 5월 박열은 백범 김구 선생의 부탁을 받아 3열사들의 유해송환 책임을 맡았다. 의열투쟁의 선봉에 섰다가 일본에 방치된 윤봉길, 이봉창, 백정기 의사 등의 유해를 고국에 모셔오는 데 앞장섰다.

간도와 연해주를 오가며 독립전쟁에 참여하다

임병극

독립기념관은 국가보훈처 및 광복회와 공동으로 임병극을 2020년 6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하였다. 임병극은 만주에 망명해 간도와 연해주를 오가며 독립운동을 펼쳐나갔다. 그는 대한국민회군 지휘관으로 봉오동전투에 참여하였으며, 간도와 연해주 일대에서 대일항전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그의 공적을 기려 1995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임병극(林炳極) 1885~미상 평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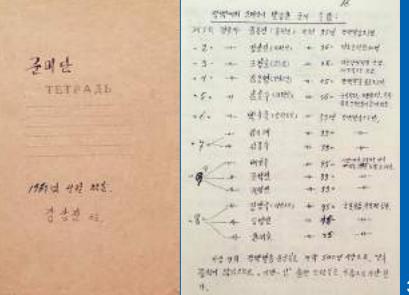
대한국민회군 제2중대장으로 독립전쟁에 참여하다

임병극은 1885년 평안도에서 태어났다. 1917년 북간도로 망명하여 대한국민회에 참여한 임병극은 외교실행위원으로 선임되어 중국 관·군의 협조를 얻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였다. 한편 1920년 초 북간도 일대에서 활동하던 독립군단들이 통합을 모색한 결과 결성된 대한북로독군부에 임병극이 활동하던 대한국민회군도 동참하였다. 임병극은 대한북로독군부의 피복과장으로 선임되어 독립전쟁에 필요한 물자 조달을 책임졌다. 또한 대한국민회군 제2중대장으로 임명되어 독립전쟁의 일선에 나섰다. 1920년 6월 봉오동전투와 1920년 10월 청산리전투에서 임병극은 독립군 연합부대의 중간 지휘관으로서 일본군을 상대로 대승을 거두는데 힘을 보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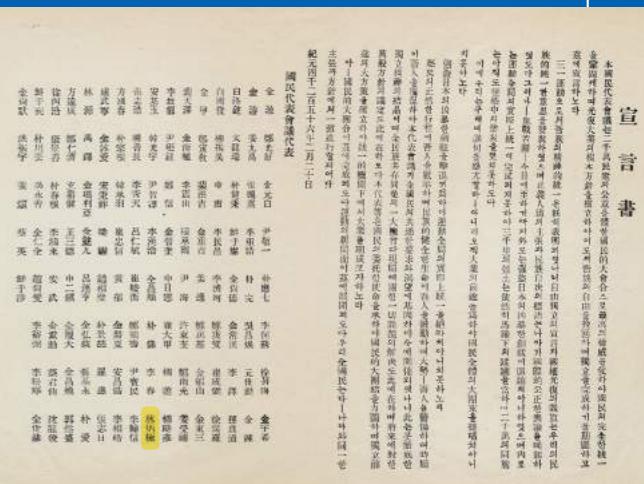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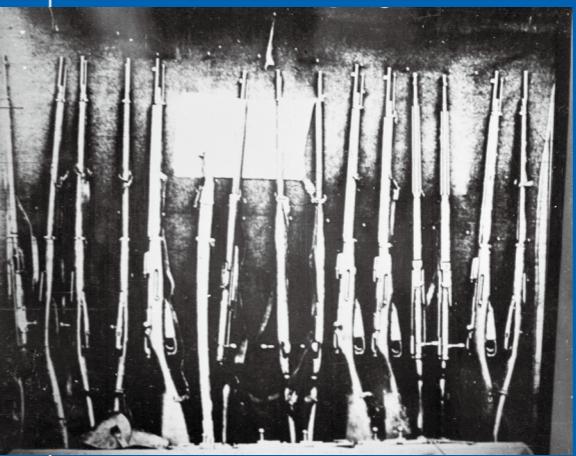
간도와 연해주를 오가며 대일항전을 전개하다

청산리전투 후 임병극은 부하들과 백두산 서쪽의 안도현으로 이동하여 의용대를 조직하고 1921년 4월 말까지 국내 진입 작전을 전개하였다. 이후 근거지를 한·중 국경지대인 장백현으로 이동하여 대한독립군비단에 합류한 후에는 경호부장으로 활동하였다. 1922년 중반 연해주로 이동한 후 그는 혈성단 및 한족공산당 등과 함께 고려혁명군을 조직하고 남부사령관으로 임명되어 국내 진입 작전을 시도하였다. 1923년 초 대한민국 임시정부 개편과 독립운동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상하이에서 열린 국민대표회의에 고려혁명군 대표자격으로 참가하여 임시정부의 개편과 무장투쟁 실천을 주장하였다. 국민대표회의가 끝난 후 연해주·북만주를 거쳐 연길로 돌아온 그는 3·1운동 5주년에 맞춰 간도 일대의 일본 영사관 파괴·친일파 암살 등 의열투쟁을 계획하였다. 일제의 감시가 심해지자 일제의 감시를 피해 지하활동을 이어가던 중 1924년 9월 중국군에 체포되어 징역 15년을 언도받았다. 간도와 연해주를 오가며 독립전쟁에 참여한 임병극의 공훈을 기리어 정부는 1995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林炳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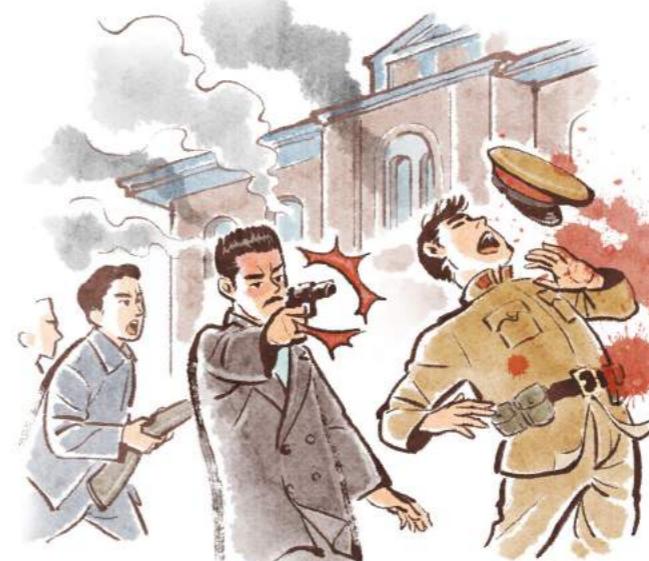


- 1 「봉오동전투」 승리 기사(『독립신문』 1920. 6. 22.)
- 2 독립군이 사용한 무기(1920년대)
- 3 대한독립군비단의 연해주 군대피난 현황
- 4 국민대표회의선언서(1923)
- 5 중국군에 체포된 사실을 보도한 기사(『시대일보』 1924. 10. 8.)



간도와 연해주를 오가며 독립전쟁에 참여한 임병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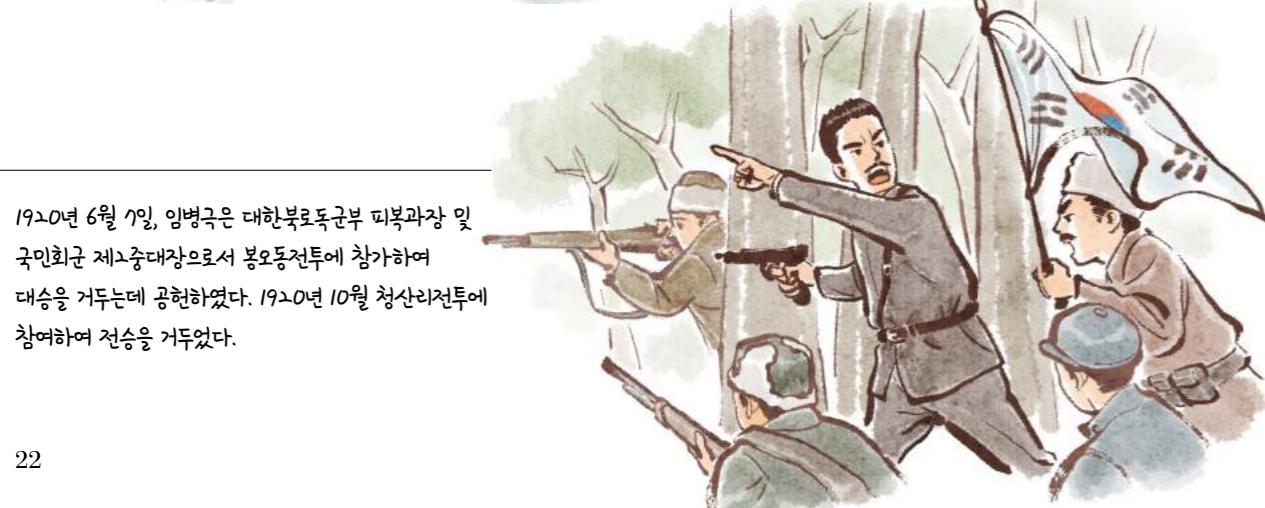
평안도에서 태어난 임병극은 1917년 만주로 망명해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는 북간도에서 조직된 대한국민회에 참여해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임병극은 외교실행위원에 선임되어 중국측의 군·관과 협상을 벌여 협조를 이끌어 내는 임무를 담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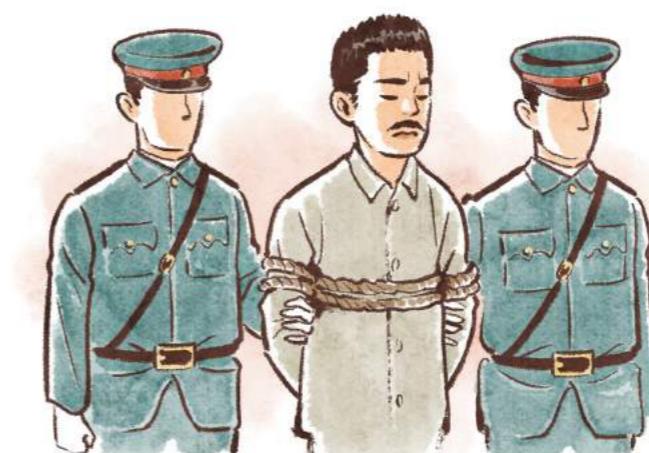
1921년 안도현에서 의용대를 조직하여 국내 진입작전을 전개하였다. 군자금을 모집하고 일제의 기관을 기습하는 등 일본군과도 수차례 교전을 펼쳤다.



대한국민회의 항일무장활동 기관인 대한국민회군 제2중대장에 임명되어 독립전쟁의 최前线에 섰다. 북간도에 근거지를 구축하고 항일무장활동을 펼치던 독립군단들은 1920년 5월 22일 북간도 독립군 연합체인 대한북로독군부(大韓北路督軍府)를 탄생시켰다. 임병극은 이 연합군단의 피복과장(被服課長)에 임명되었다.



1920년 6월 7일, 임병극은 대한북로독군부 피복과장 및 국민회군 제2중대장으로서 봉오동전투에 참가하여 대승을 거두는데 공헌하였다. 1920년 10월 청산리전투에 참여하여 전승을 거두었다.



회의 참석 이후 임병극은 1924년 5월 다시 북간도로 이동해 3·1 운동 5주년에 맞춰 의열투쟁을 계획하다가 중국군에 체포되어 징역 15년을 받았다. 정부는 독립운동에 헌신한 임병극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구미위원회의 설립과 활동(Ⅰ)

IV. 3·1운동의 이후 재미한인사회와 변화①

3·1운동 발발 후 그동안 대한인국민회 중심으로 이루어진 한인사회에 새로운 단체와 조직들이 생겨나면서 변화의 바람이 일어났다. 미주 한인 최대의 자치기관으로 독립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하던 대한인국민회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면서 한인사회는 재편되기 시작했다. 그러한 변화의 중심에 이승만이 설립한 구미위원회가 있었다.



구미위원회에서 활동한 인물들
(앞줄 왼쪽부터 남궁염·송현주·이승만·김규식·신형호,
뒷줄 왼쪽에서 두 번째부터 임병직·김노디)

구미위원회의 설립

3·1운동 발발 이후 최대의 수혜자를 꼽으라면 단연 이승만이다. 파리강화회의 파견 대표로 선정된 이승만의 파리 행계회는 미국의 여권 발급 불허로 무산되었으나, 3·1운동 발발 이후 그의 위상은 완전히 바뀌었다. 이승만은 상하이에서 특별대표로 활동한 현순으로부터 두 차례(4월 4일, 4월 15일)에 걸쳐 임시정부 수립과 '국무총리' 선임 소식을 들었다.

그는 필라델피아 '제1차 한인회의' 때 실제로 임시정부의 '국무총리'로 활동했다. 그런 가운데 이승만은 1919년 5월 말 국내에서 건너온 신흥우를 위성던 DC에서 만나 한성정부 선포 문건을 입수하고 자신이 집정관총재로 선출된 사실을 알았다. 한성정부는 서울에서 13도 대표들이 국민대회를 개최하여 조직하고 선포한 것으로 상하이나 블라디보스토크의 다른 어떤 임시정부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

이승만은 6월 초부터 한성정부의 존재를 대내외에 알리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대한공화국의 대통령으로 선출된 사실을 미국을 비롯해 각국 정부에 알렸다. 한성정부의 '집정관총재'를 영어로 마땅히 번역할 말이 없는 상태에서 그는 자신을 '대통령(president)'으로 소개했다. 7월 4일에는 국내외 동포들에게 '대한민주국 임시집정관 총재 선언서'를 발표해 한성정부의 정통성과 정부에 대한 복종 그리고 정부 유지를 위한 재정 의무를 촉구했다. 이어서 8월 13일 집정관총재 명의로 '국채표에 대한 포고문'을 발표하고 김규식·송현주·이대위 세 사람으로 구성한 '재무위원회' 설치를 공표했다. 이승만이 '재무위원회'를 설립하겠다고 한 것은 미주지역의 재정을 총괄하는 기관을 만들겠다는 구상이었다.

그런데 이승만은 8월 25일 집정관총재 직권으로 '대한민국특파 구미주찰위원회' 즉 '구미위원회' 출범을 공포했다. 이 날은 김규식이 8월 24일 위성던 DC에 도착한 다음 날이었다. 김규식은 파리강화회의 종결을 앞두고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던 중 미국으로 건너가 활동하고 싶다는 요청(1919. 5. 25.)을 이승만에게 했는데 이승만의 화답

으로 미국에 오게 되었다. 이승만이 당초 '재무위원회'에서 '구미위원회'로 명칭을 바꾼 것은 재정권 관할만을 내세울 때 대외 명분을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한 까닭으로 보인다. 미주 교민들로부터 안정적으로 독립운동자금을 거두기 위해 구미의 외교와 선전활동을 전담할 기구가 필요했던 것이다.

독립공채 판매와 조직 확대

이승만은 구미위원회의 초기 조직을 위원장 김규식, 위원 이대위와 송현주로 구성했고 기존의 파리 한국통신부와 필라델피아 한국통신부를 비롯해 1920년 6월 새로 신설한 런던사무소까지 편입해 산하의 부서로 편성했다. 외형적으로 볼 때 구미위원회는 구미지역 선전외교활동의 중심 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과 함께 집정관총재가 되고 나아가 1919년 9월 통합된 임시정부에서 마침내 임시대통령으로 확정되면서 이승만의 대내외의 입지는 더욱 탄탄해졌다. 그의 비중과 역할이 커질수록 그동안 무형정부로 자처했던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의 입지는 국외 여러 민간단체의 하나로 크게 위축되었다.

그런 중에 이승만이 추진한 독립공채 발매 요구(1919. 9. 4.)에 대한민국민회 중앙총회가 반발해 애국금 모금을 강행하자 1919년 9월부터 중앙총회와 구미위원회 사이에 애국금·공채표 논쟁이 일어났다. 애국금·공채표 논쟁은 미주지역 재정권 관할을 둘러싼 중앙총회와 구미위원회 간의 알력으로 비추어질 수 있으나 중앙총회의 입장에서 볼 때 구미위원회는 상하이 임시정부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지 않은 이승만의 임의 단체라는 불신이 밀바탕에 깔려 있었다.

임시정부 재무총장 이시영은 1920년 2월 24일 「재무부 훈령」 제1호를 공포하여 대한인국민회의 애국금 모금을 폐지하고 '독립공채' 판매로 정리했고 이어서 3월 23일 전문에서 이승만에게 재정의 모든 업무를 구미위원회로 일임할 것임을 통보했다. 미주 한인社会의 재정관할권을 구미위원회로 넘기겠다는 것은 임시정부가 이승만이 설

립한 구미위원회를 공식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임정의 조치에 크게 고무된 이승만은 1920년 4월 10일 '주차 구미위원회 공포서', '공채조례', '지방위원회조례'를 작성해 공포했다. 이를 통해 구미위원회는 공채 판매 목표액을 30만 달러로 설정하고 각 지방에서 투표로 뽑은 지방 위원과 시찰원으로 하여금 독립공채를 판매하는 것으로 정했다.

임정으로부터 재정관할권을 인정받은 구미위원회는 모금활동에 박차를 가했다. 먼저 재정 수입(1919. 9 ~ 1922. 4)을 보면 예납금·공채금·의연금 등 총 149,653달러이다. 재정 지출(1919. 12 ~ 1921. 8)의 경우 총 89,141달러인데 그중 임정 대통령공관과 위원부 사무실 35,677달러, 필라델피아 통신부 15,765달러, 파리통신부와 런던사무소 8,276달러, 임시정부 16,552달러를 지출했다. 주로 사무실 유지와 활동 경비, 각 통신부의 선전활동에 지출하였고 임정에 대한 지출은 전체 지출 중 18%에 불과하다. 임정 송금액을 놓고 볼 때 중앙총회가 1918년 11월부터 1920년 7월까지 총 지출한 110,835.76달러 중 40%인 46,454.06달러를 임정에 보낸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적다.

구미위원회 위원장 김규식은 독립공채 판매로 모금한 돈을 가능한 임정에 보내려 했다. 그가 위원장으로 재직한 1920년 9월까지 임정으로 송금한 금액은 총 7,000달러인데 전체 송금액 16,552달러의 42%에 해당된다. 김규식은 위원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모금한 재정 관리에 심혈을 기울였다. 이것은 구미위원회가 이승만의 사적인 기구가 아니라 임정의 공기관이라는 점을 주지시키기 위함이었다. 이러한 그의 활동 방침은 이승만에게 상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독자행동으로 비추어져 김규식과 이승만 간의 갈등으로 점차 비화되었다.

'지방위원회조례'를 근거로 구미위원회는 산하 지방위원회의 조직을 확대했다. 지방위원회는 미국 본토 25곳, 하와이 11곳, 멕시코와 쿠바 6곳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실제 제대로 운영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교육 현장에 스며든 학습의 잔재

'국민학교'는 일제시대에 붙여진 용어라 하여, 1996년 '초등학교'로 변경되었다. 단어는 하룻밤이 지나 바뀌었지만 변화는 쉽게 익숙해지지 않았다. 이미 국민학교를 졸업한 사람, 국민학교에 입학했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등 한동안 말이 뒤틀어지는 현상을 거쳐야 했다. 그렇게 10년이 지나고 어느덧 20년이 지났다. 이제 국민학교라고 칭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다.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남았지만 일상에서는 사라진 셈이다.



교복, 그 익숙함 뒤편

지난 5월 정부가 올해 2학기부터 중·고등학생에게 한복 교복을 입게 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그간 학생들 교복이 몸에 꽉 끼어 불편하다는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히며, 한복 교복을 입을 학교를 공모한다고 전했다. 전례 없는 사안에 어리둥절하면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과거의 교복을 떠올리면 남녀 모두 검은색 상하의 차림의 복장으로 기억된다. 바로 그 교복은 일본 군복을 변형한 형태로 일제의 잔재였다. 여학생의 교복을 '세일러복'이라고 불렸던 것도 해군(sailor)의 군복을 모방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우리나라 사람을 황국신민으로 길들이려는 방식 중 하나였으며, 군국주의적 교육 방식의 상징물이었다. 광복 이후에도 교복은 존재했다. 1960년대 후반부터 1980년 중반까지는 대학생들도 교복을 입었다. 입을 만한 옷이 마땅치 않던 시절이었으므로 교복은 그런대로

잘 활용된 편이다. 대학에 따라 왼쪽 어깨 부분에 학교 로고를 붙였다. 그런데 이 또한 오래가지 못했다. 1980년대 들어 대학이 대거 늘어났고 민주화운동에 힘입어 교복은 퇴출됐다. 학생들은 입고 싶은 사복을 입고 캠퍼스를 누볐다. 하지만 그 기간도 길지 않았다. 5년 뒤, 일명 사복 브랜드 경쟁으로 인해 교복이 다시 등장했다.

이후 교복은 중·고등학생들의 제복 역할을 담당해왔다. 현재 교복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이유 중 하나는 일제강점기의 교복 이미지가 퇴색한 까닭도 있다. 하지만 없애야 할 이유가 마땅하다면 실행되어야 할 일이기도 하다. 다만 특정 부분에 편향되어 함께 개선해야 할 중요한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교복 가격으로 인한 학부모의 부담, 성장하는 청소년에게 입학 시절 교복을 입고 3년간 버티게 하는 일, 새롭게 등장할 생활한복의 가격 대중성까지, 시야를 넓혀 진정 나은 방향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때다.

다른 세대, 동일한 학습

알고 보면, 교육 환경에 녹아 있는 일제의 잔재는 의외의 것들이다. 아마 자신도 모르는 새 고유의 문화라고 여기고 학습된 것들이 분명 있을 것이다. 그중에서도 어느 정도 언급되어왔던 소재가 '유치원'이다. 유치원은 개항 직후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됐으며 그 기원이 일제강점기에 있다. 당시 일본 학자가 독일의 '킨더가텐(Kindergarten)'을 '유치원(幼稚園)'으로 번역했다고 한다.

또 일본에 복종하도록 만들기 위해 고안된 학교 규율에서도 잔재를 찾아낼 수 있다. 바로 수학여행이나 소풍 등이 그것이다. 일본은 1910년부터 조선과 만주를 오가는 13박 14일의 수학여행을 만들었다. 목적은 조선의 학생들을 일본에 보내 일본을 숭상하게 만들기 위함이었다. 국민들의 사고를 마을 중심에서 국가 중심으로 옮기는 작업도 시행됐다. 주민들을 학교에 모아 국가의 존재감을 인식하게 만든 것이 바로 운동회나 학예회였다. 더불어 액자 속에 넣은 태극기, 애국 조회, 거수경례 등 국가에 대

한 맹목적 충성을 강요한 모든 것이 일제의 잔재들이다. 지난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경남교육청은 일제 잔재를 청산하는 의미로 본청 마당에 있던 가이스카 향나무를 뽑아내고, 바로 그 자리에 소나무를 심었다. 나무 한 그루를 뽑았다고 해서 일제의 잔재가 하루아침에 청산되는 것은 아니다. 단지, 뿐만 나무처럼 우리네 교육 환경 깊이 남아 있는 일제의 잔재도 청산해나가겠다는 의미였을 것이다.

광복 75년이 된 지금도 우리 삶 전반에 일제의 흔적이 자리해 있다. 물론 자의든 타의든 이미 퇴색되고 사라진 것도 있다. 한편에서는 "일제강점기에 시작된 명칭이나 산물이라 하여 무조건 배척하고 부정하는 것 역시 제한된 시각"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그래서 더욱 살펴봐야 하는 것이다. 제대로 근원을 따져보고 공론의 장을 거쳐야 한다. 아울러 더 많은 사람이 나서서 교육 현장 및 환경 속에 남아있는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변화를 꾀해야 할 것이다. 시도하면 변화는 언젠가 찾아온다.



여진족과의 대결

고려를 군사적으로 위협한 국가는 크게 볼 때 세 나라다. 하나는 거란족 요나라, 하나는 여진족 금나라, 또 하나는 동글족 원나라다. 이들은 다 북방 유목국가들이다. 이들과의 대결을 기준으로 고려시대 역사는 대체로 전기·중기·후기로 나뉜다.

고려사절요



말갈족의 지도자 김함보

세 유목국가 중에서 큰 군사적 타격을 가하지 않으면서도 고려를 상대로 오래도록 수모와 시름을 안겨준 나라는 금나라다. 금나라를 세운 여진족은 고구려와 발해에 속했던 말갈족의 후예다. 오랫동안 한민족 지배를 받았던 이들은 926년 발해 멸망을 계기로 한민족의 통제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관계가 끊어진 것은 아니다. 하나의 고리를 매개로 한민족과 여진족의 관계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 그 고리는 신라인 김함보다.

경주 김씨로서 신라 왕족이었던 김함보는 아버지 김행이 왕건의 통일전쟁에 협조하는 데 불만을 품었다. 김행은 930년 지금의 경북 안동에서 벌어진 고창전투 때 왕건과 함께 후백제군을 격파했다. 그 공으로 안동 권씨 성을 하사받았다. 안동 권씨의 시조가 된 것이다. 아버지 김행이 권행으로 바뀐 뒤 김함보는 말갈족 땅으로 망명했다. 김함보란 이름은 망명 뒤 사용한 한자 이름이다.

김함보는 말갈족 내부의 갈등을 해결하면서 그곳 지도자로 떠올랐다. 금나라 역사를 기록한 『금사』에 따르면, 그는 말갈족의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약 영웅으로 떠올랐다. 그는 만주 북부의 말갈족 완안부를 거점으로 이 민족을 새롭게 개혁했다. 김함보에 의해 재편된 뒤로 이 민족은 종래의 말갈족과 구분하는 의미에서 여진족으로 불리게 됐다. 이 민족은 김함보 7대손인 아골타 때 금나라라는 강대국을 세웠다. 금나라는 김함보를 시조황제로 추대했다. 여진족 후예인 청나라 건륭제가 약 50명의 학자를 동원해 만주 역사를 정리한 『만주원류고』는 국호가 금나라로 정해진 것은 김씨의 자손이 세운 나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것은 오늘날 금나라 국호의 기원을 설명해주는 주요 학설 중 하나다.

고려와 여진족의 관례 흐름

말갈족에서 여진족으로 변신한 뒤 이 민족은 고려와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 거란족 요나라가 동아시아 최강국이던 시절, 여진족은 고려에 사대하고 고려를 상국(上國)으로 떠받들었다. 고려에 조공품을 보내고 회사(回賜)라는 이

름의 반대급부를 받아 갔다. 고구려·발해 때처럼 한민족과 하나의 국가를 이루지는 않았지만, 상국과 신하국이라는 새로운 관계를 갖게 된 것이다.

그런데 완안부의 힘이 강해지면서 정세가 바뀌기 시작했다. 이들을 중심으로 여진족이 고려와 요나라의 국경을 교란하는 일이 잦아졌다. 이로 인해 안보 위협을 느낀 고려가 1033년 착공해서 1044년경 완공한 것이 바로 천리장성이다. 하지만 만리장성이 중국을 보호해주지 못했듯 천리장성도 고려를 지켜주지 못했다. 계속해서 세력을 확장한 완안부는 1097년에는 두만강 이남과 천리장성 이북 까지 위협했다. 고려에 사대하는 이 지역 여진족 집단들을 자신들의 지배 아래 넣을 목적에서였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나온 것이 예종(재위 1105~1122년) 때 벌어진 윤관의 여진족 정벌이다.

교과서나 백과사전에는 윤관의 정벌이 1107년 사건으로 기록돼 있다. 윤관의 정벌이 1107년 12월에 벌어졌다는 판단하에 그렇게 기술되고 있다. 하지만 『고려사』 예종세가(예종 편)에 따르면, 윤관의 정벌이 개시된 시점은 양력으로 1107년 12월이 아니라 음력으로 정해년 12월이었다. 이때의 정해년 12월 1일은 양력 1108년 1월 15일이다. 따라서 윤관의 정벌은 1107년이 아니라 1108년 사건이다. 『고려사』 축약판인 『고려사절요』에 따르면, 예종이 윤관에게 통솔권의 상징인 부월을 하사한 것은 정해년 12월 1일에서 3일 사이였다.

이 시점에 개시된 윤관의 원정은 여진족에 대한 고려의 정책 변화를 상징했다. 그전까지 고려는 여진족이 사대하는 조건으로 조공과 회사 형식의 물물교환 무역을 허용했다. 동아시아에서 상국과 신하국의 무역은 일반적으로 상국의 적자 무역이었다. 유목국가가 상국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명나라 같은 농경국가가 상국인 경우에는 대체로 상국이 적자를 봤다. 상국들은 적게 조공 받고 많이 회사하는 방식으로 신하국의 충성을 이끌어냈다. 명나라에 적대적이었던 정도전 정권이 해마다 3번 조공하겠다고 우기고 명나라는 3년에 한 번만 하라고 요구한 것은 양국 무역이 명나라에 적자를 안기는 구조로 전개됐기 때문이다.

윤관의 정벌이 가진 의미

한편 농경민족과 유목민족의 무역은 대체로 농경민족의 적자 무역이었다. 이것은 농경민이 유목민의 침략을 막는 방편이었다. 고려와 여진족의 무역은 상국 대 신하국의 무역인 동시에 농경민 대 유목민의 무역이었다. 어느 면으로 보나 고려에 적자를 안길 수밖에 없었다. 고려는 이런 식으로 적자를 감내하면서 여진족의 도발을 막았다. 윤관의 정벌은 고려가 이 정책을 폐기했음을 뜻했다. 적자 무역으로 여진족을 달래기보다는 군사적 강공으로 굴복시키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

이 전략은 대성공을 거뒀다. 윤관과 17만 대군은 천리장성 이북의 135개 여진족 촌락을 함락하고 그곳에 아홉 성을 축조했다. 지금의 읍 단위에 축조된 고대의 성은 성 안뿐 아니라 성 밖의 주변 지역도 함께 거느렸다. 그래서 성 1개를 차지하는 것은 지금의 군(郡) 1개를 차지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윤관의 정벌은 대성공이었지만 이것은 잠깐의 성공이었다. 동북 9성을 쌓은 그해에 고려군은 김함보의 7대손인 아골타에게 패했고, 이는 1109년에 동북 9성을 반환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그 뒤 고려는 더 이상 북진을 추진하지 않았다. 그래서 동북 9성 반환은 태조 왕건 아래의 북진 정책을 포기한다는 의미를 떠었다.

이것은 여진족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기능을 했다. 고려의 북진 가능성을 차단한 여진족은 완안부 중심으로 종족 통합을 이루고, 이를 발판으로 고려의 통제에서 벗어났다. 1115년에는 이들의 나라인 금나라가 건국됐다. 뒤이어 1117년에는 이들이 고려를 자국의 신하국으로 전락시키는 대역전이 발생했다. 고구려·발해 때는 한민족의 지배를 받고, 고려 건국 이후 2세기 동안은 한민족의 신하국으로 살았던 그들이 한민족과의 관계를 역전시키는데 성공했던 것이다. 서두에서 금나라를 두고 ‘커다란 군사적 타격을 가하지 않으면서도 고려를 상대로 오래도록 수모와 시름을 안겨준 나라’라고 말한 이유는 이 때문이다. 금나라를 상국으로 받든 약 1세기는 고려인들에게 그런 고통의 시기였다.

한민족의 100년 유산

하지만 한민족은 그 백 년간 여진족의 압력을 받으면서도 자주성을 훼손당하지는 않았다. 거란족이나 몽골족의 침략과 달리 이 시기 여진족의 압력은 후대의 한국인들에게 상대적으로 덜 강렬하게 기억되고 있다. 이것은 여진족의 침공이 거란족·몽골족에 비해 덜 강렬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한민족이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기울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데는 크게 두 가지 비결이 작용했다.

요나라가 최강이던 시절, 강감찬은 귀주대첩으로 그 기를 꺾었다. 그 후로 요나라는 더 이상 남하를 시도하지 않았다. 그 결과 고려는 물론 송나라(북송)도 평화를 얻게 됐다. 이것은 한반도와 만주, 중국이 세력 균형을 이루는 계기가 됐고, 세력균형의 틀은 금나라 등장 후에도 쉽게 깨지지 않았다. 금나라는 북중국을 지배하는 데 만족해야 했다. 송나라를 멸망시키는 데는 성공했지만, 송나라 황실이 남중국에서 부활하는 것까지는 막지 못했다. 그래서 송나라 멸망 뒤에는 고려·금나라·남송의 세력 균형 구도가 작동했다. 이 구도는 고려가 여진족의 압력으로부터 자주성을 유지한 첫 번째 비결이다.

첫 번째 비결이 강감찬 시대의 유산이라면, 두 번째 비결은 1117년 이후의 고려인들이 스스로 얻어낸 것이다. 금나라에 사대한 후로도 고려는 여진족과 북송, 여진족과 남송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고자 노력했다. 금나라 쪽으로 좀 더 기울기는 했지만, 그런 속에서도 고려는 어느 한쪽에 지나치게 경도되지 않으려고 애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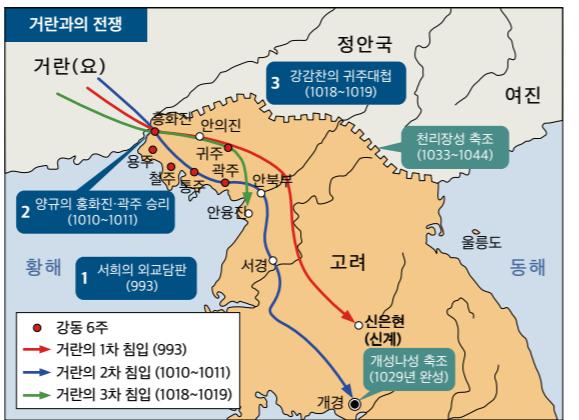
1125년부터 금나라의 공격을 받은 송나라(북송)가 협공을 제의했지만, 고려는 거부했다. 1127년에 송나라가 멸망하고 남송이 세워졌다. 고려는 금나라에 사대하는 가운데서도 남송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지 않았다. 그래서 남송이 정금가도(征金假道)를 제안하는 일이 가능했다. 일본이 명나라를 함께 치자며 조선에 정명가도를 제의했듯이, 남송도 금나라를 치자며 그런 제의를 했다. 하지만 고려는 거절했다.

똑같은 일이 1161년에도 있었다. 이때도 고려는 거절했다.

남송이 거듭 제의할 수 있었던 것은 고려와 금나라의 동맹이 튼튼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1164년에 고려 사신이 남송을 방문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일이다. 금나라에 사대하면서 금나라의 적인 남송과 교섭하는 것은 위험했다. 그런데도 고려 정부는 어느 한쪽에 편향되지 않으려고 외교적 모험을 감수했다.

강감찬 시대에 만들어진 세력균형에 더해 1117년 이후 고려인들의 이 같은 노력이 함께 작용한 결과로, 고려는 금나라의 압력으로부터 국권의 자주성을 지켜낼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굴욕은 있었지만, 나라를 지키기 위한 그 시대 고려인들의 용기와 열정만큼은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귀주대첩 관련



제32회 독립기념관 관람감상문 공모대회 수상작

조상들의 풍찬노숙 의미를 실감한 체험

대부분 역사 교과서에서 배워 아는 분들이 많은데, 전혀 이름도 사진도 알 수 없는 분이 있다. 바로 김두봉이다. 국어학자로만 되어 있어서 집에 와서 자료를 조사하다가 깜짝 놀랐다. 북한에서 고위직에 있던 분이다. 중국에서 활발하게 독립운동을 하던 분인데 해방 후에 북으로 간 것이다. 국어 선생님께 여쭤보니 “이분이 남한에 정착하면 국어 발전에 많은 공을 세웠을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안타까움을 표하신다.

6·25전쟁 자료를 보면서 다시는 이러한 동족상잔의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였다. 그 폐허를 딛고 세계 속의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 11위,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주는 유일한 나라로 발전했으니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한문 시간에 배운 풍찬노숙이라는 고사성어가 실감 나는 하루였다.

수원 화홍중학교 2학년 박소연





십승지지를 찾아서 생거 부안

전라북도에 자리한 부안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곡창지대인 김제평야가 있는 김제와 바다의 보고 갯벌이 드넓게 펼쳐진 고창과 맞닿아 있다. 내륙과 바다를 모두 면하고 있으니 산물이 풍부하고 기온까지 온화하여 생거(生居), 즉 살기 좋은 곳으로 손꼽힌다.

어염시초, 생거 부안

“우리나라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이 어디냐?”

조선 제21대 임금 영조가 암행어사 박문수에게 물었다. 박문수는 주저 없이 대답했다.

“어염시초(물고기·소금·땔나무)가 풍부해 부모를 봉양하기 좋은 생거 부안인 줄 아뢰옵니다.”

이런 까닭에 부안은 난리를 피해 몸을 보전할 수 있고 거주 환경이 좋은 십승지지에 이름을 올렸다. 그중 대표적인 곳이 부안군 보안면이다.

보안면에는 호암굴이라 불리는 큰 동굴이 있다. 난리에도 안전할 정도로 크고 깊은 이 동굴은 외부에서 쉽게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깊은 곳에 숨어있다. 동굴을 찾아가는 길에는 잡풀과 나무가 무성하다. 하늘이 손바닥만큼 얼굴을 내밀면 그제야 울창한 대나무 숲이 나오고 그 뒤에 동굴이 있다. 동굴 안에서 피리 소리가 바람에 실려 온다. 전주에서 시조 소리를 공부하다가 부안에 귀촌한 김용구 선생

이 피리를 연주 중이다. 그는 전북 무형문화재 34호 이수자로 시조와 가사를 수련하고 있다.

“여기 사람들은 어질고 착해요. 살기 좋으니까 나 같은 사람도 부안에 자리를 잡았겠죠. 흔히 전주를 소리의 고장이라고 하는데 부안도 그에 못지않아요. 부안은 예로부터 해산물이 풍부하고 땔나무도 많았다고 하잖아요. 또 소금 까지 생산됐으니 먹고사는 걱정은 없는 곳이죠.”

마을 주민의 말에 따르면 마을에 110세가 넘은 할머니가 계신다고 한다.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주민들의 입을 통해 할머니의 장수 비결을 짐작할 수 있다.

“여기 쌀로 밥을 지으면 보슬보슬하고 윤기가 흐르고 맛이 좋아요. 밥만 먹어도 고소하다니까요. 해풍을 맞고 자라서 병충해 발생이 적고 영양도 풍부해요. 특히 잡곡은 섬유소가 풍부해요. 영양소는 껌질에 죄다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껌질을 완전히 벗기지 않고 먹어요. 먹을 때 좀

깔끄럽기는 하지만 자꾸 먹다 보면 익숙해져요.”

백년을 내다본 시대의 학자, 반계 유형원

가까운 곳에 실학의 거목 반계 유형원(1622~1673) 유적지가 있다. 유형원의 아버지는 역적으로 몰려 죽임을 당했다. 그가 일찌감치 출세를 포기한 이유도 이 때문이 아닐까. 14살에 겪은 병자호란(1636, 인조 14)도 약소국의 설움을 빼서리게 체험하는 시간이었을 게다. 그는 신세 한탄에 머물지 않고 은둔 개혁자의 삶을 선택했다. 우반동에 정착한 그는 수많은 책을 읽으며 이상 국가의 모델을

1 호암굴 앞에 자리한 우동제

2 북원된 반계서당

3 반계서당과 넓은 들녘

4 빛바랜 소금창고

5 천연 미네랄이 풍부한 곰소염전 천일염



그려나갔다. 성리학은 물론 정치, 경제, 역사, 지리, 병법, 문학 등 어느 것 하나 섭렵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그리하여 19년의 긴 집필 끝에 『반계수록(磻溪隧道錄)』을 세상에 내놓았다. 국가 운영과 개혁에 대한 견해를 담은 책으로써 시대를 앞서 내다본 유형원의 역작이다. 하지만 생존할 당시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다가 성호 이익과 그의 제자 순암 안정복에 의해 세상에 알려지면서 1750년 영조(1694~1776)가 이 책을 간행하도록 허락했다.

이후 정조(1752~1800)는 유형원의 개혁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그 결과물이 1796년에 축조된 수원화성이다. 『반계수록』 발표 126년 만의 일이다. 현재 보안면 우반동에는 유형원이 후학을 가르쳤던 반계서당(전라북도 기념물 제22호)이 있다.

자연과 땀의 결정체, 소금

30번 국도를 따라 채석장으로 향한다. 그 길목에 곰소항이 있다.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천일염을 생산하는 곳이다. 조선시대에는 천일염이 아닌 바닷물을 끓여 만드는 ‘화염(火鹽)’을 생산했다고 한다. 지금의 염전이 생긴 것은 1942년 일제가 부안지역을 군항(軍港)으로 만들고 제방과 도로를 건설하면서부터다. 이때 염전이 만들어졌으니까 70년이 지났다.

뜨거운 뛰약볕 아래에 빛바랜 소금창고가 흑백영화의 한 장면처럼 염전을 지키고 있다. 날이 뜨거워서 그런지 염전에는 사람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다.

“목이 타들어 가도 우리는 한여름 뛰약볕이 고마워.” 소금창고에서 작업 중인 할아버지의 말이다. 그는 대를 이어 소금 아비를 하고 있단다. 오랜 세월 동안 해왔던 일이라 그런지 삽질이 짚은이 못지않다. 힘은 부족할지 몰라도 소금을 다루는 기술이 뛰어나 보인다. 그의 몸놀림은 춤을 추듯 일정한 리듬을 타고 있었다.

“소금이 절로 나는 게 아닙니다. 햇볕·바람·사람 땀 냄새가 섞여야 소금꽃(소금 결정체)이 펴요. 비라도 와 봐요. 소금꽃이 다 녹아버리지. 바닷물을 두 번에 나눠서 증발지로 보내고 마지막으로 새벽부터 온종일 햇볕에 졸여져



야 저녁에 하얀 소금꽃이 피는 거예요.”

정성 어린 땀과 시간이 모여 탄생한 천일염은 건강에 좋지 않은 염화나트륨은 낮지만, 칼슘·마그네슘·칼륨 등 천연 미네랄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 곰소항 인근에는 젊은 전문점과 꽃게장 전문 맛집들이 문전성시를 이룬다. 곰소



항의 풍부한 해산물과 곰소염전이 만든 합작품인 셈이다. 꽃게장에 밥을 비벼 먹으면 혀끝에 단맛과 고소한 맛이 오랫동안 배어난다. 미네랄이 풍부한 곰소 천일염이 햇볕과 바람에 졸여진 덕분이다.

부안 최고의 비경, 30번 국도에 이어져

요즘은 사람들이 부안을 찾는 이유는 따로 있다. 30번 국도를 따라 변산반도의 비경을 보기 위해서다. 곰소항을 지나면 마동방조제와 모항갯벌해변이 이어지고, 그 길목에 서해안 3대 낙조로 꼽히는 솔섬 낙조가 있다. 낙조 감상은 전북학생해양수련원 바다에서 가능하다. 솔섬은 소나무 몇 그루가 자라는 작은 섬이다. 부안 최고의 절경은 역시 채석장이다. 채석장은 중국 당나라 시인 이태백이 배를 타고 술을 마시다가 강물에 뜯달을 잡으려다 빠졌다라는 채석장과 풍광이 닮아서 그리 불린다. 책 수만 권을 쌓아 놓은 것 같은 채석장은 세월이 켜

켜이 쌓인 퇴적암 지대다. 역시 소문난 잔치에는 반드시 먹을 게 많다. 살기 좋은 부안은 그런 곳이다.

6 소금창고에서 작업 중인 박정길 할아버지

7 필수아미노산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꽃게장

8 서해안 3대 낙조로 꼽히는 솔섬 낙조

9 부안의 명소 채석장



승리의 역사

아쉬운 재현



봉오동전투(2019)
액션, 드라마 | 135분 | 감독 원신연
출연 유해진(황해철 역), 류준열(이장하 역)

1920년에 발생한 '봉오동전투'는 역사상 온전히 승리한 기록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영화로 제작되지 않았다. 그런 중 2019년에 봉오동전투를 다룬 영화 <봉오동전투>가 개봉했다. 감독은 그동안 스크린에서 볼 수 없었던 이 전투의 기억을 어떻게 재현해냈을까. 서사는 어떻게 풀어냈을지, 영화적 리듬은 어떻게 구성했을지 궁금하다.

승리의 역사는 왜 재현되지 않았나

영화 <봉오동전투>의 감독이 김윤진 주연의 <세븐 데이즈>, 공유 주연의 <용의자> 등을 연출한 원신연 감독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적임자라고 생각했다. 봉오동전투의 경우 소수의 독립군 연합부대가 다수의 일본군을 좁은 협곡으로 유인해 거둔 대승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이 분야에서 장기를 발휘한 원신연 감독이라면 매우 잘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일제강점기를 다룬 많은 영화는 어두운 정서를 지니고 있다. 일제의 폭압이 얼마나 강압적이었는지 고발하는 내용이 다수를 이루었다. 일본군 '위안부'를 그린 영화가 대표적이고, 여성이 등장하는 많은 영화들, <경성 학교: 사라진 소녀들>이나 <기담>, <아가씨> 등의 영화도 예외는 아니다. 가끔씩 독립군 이야기도 하지만, <암살>이나 <밀정>처럼 실패한 역사를 토대로 판타지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정도에 그치고 만다.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의 재현은 아마도 대중의 심리와 깊이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해방은 되었지만 여전히 일제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우리 시대의 어두운 집단 무의식이 재현으로 표출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라고 해서 패배의 기억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1920년에 발생했던 '봉오동전투'와 '청산리전투'는 온전한 승리의 역사이다. 통쾌한 승리의 기억이다. 그런데 기이하다고 할 만큼 두 전투를 소재로 한 영화는 없었다. 해방 직후나 1960년 전후에 반일 정서의 영화가 수없이 제작되던 시절에도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것이 이상한 것은 상처와 패배의 역사는 술하게 스크린에 전시되었지만 온전한 승리의 기억은 재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윤리적 문제로 얼룩진 봉오동전투

2018년에 개봉한 <봉오동전투>는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바로 그 승리의 기록을 다룬다. 대중들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진 봉오동전투를 영화화하려면, 영화의 시작은 독립군 부대가 함북 종성군 강양동의 일본군 헌병초소를 습격하는 장면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이 습격을 빌미로 일본군이 만주로 추격해 오고, 독립군은 그들을 유인해 고려령과 봉오동에서 대대적인 승리를 거둔다는 내용으로 마땅히 전개되어야 한다. 지형을 이용한 매복 작전의 숨 막히는 서스펜스가 영화의 대부분을 차지하다가 통쾌한 액션의 충격전으로 마무리하는 것.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영화적 리듬일 것이다. 쫓고 쫓기는 추격전의 리듬 말이다.

그런데 완성된 영화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전개된다. 일본군에게 가족을 잃어 복수심이 강한 대한독립군 소속의 황해철과 이장하가 주인공이다. 영화의 오프닝은 황해철이 일본군에게 동생을 잃는 장면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누나를 잃은 이장하를 등장시켜 일제의 잔혹한 학살에 개인이 어떻게 복수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춰 진다.

일제는 잔혹하기 그지없다. 월강추격대 대장 야스카와는 극악무도할 정도로 잔혹하고, 선봉대로 온 남양수비 대장 아라요시도 양민 학살을 즐기는 냉혈한이다. 영화의 갈등과 대결은 악한 일제와 개인적 원한이 있는 독립군 사이에 발생하는데, 이런 설정은 봉오동전투의 근

원적인 설정과 동일하게 보기 어렵다. 여기에 남양수비 대에게 동생과 가족을 잃은 어린 춘희, 그 학살의 현장에 있었던 어린 일본군 유키오를 등장시켜 윤리적 문제로 영화를 바라보게 만든다.

승리의 전략이 생략된 아쉬운 전개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격전의 '영화적 리듬'이 좋으면 영화는 살아날 수 있다. 일제의 잔혹한 폭력에 수많은 양민들이 희생되었으니 영화의 이런 설정을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개인의 원한에 치중하다 보니 전투의 전개 양상이나 그 과정에서 승리를 이끈 흥미도의 전략이나 독립군들의 기지 등이 쉽게 드러나지 않았다.

숨 막히는 스릴이나 긴장감도 약화되었다. 더 독하게 말하자면, 어떤 상황에서는 영화적 설정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다. 가령 독립군 포로가 황해철에게 "봉오동에 독립군이 없고 모두들 러시아로 넘어 갔다"고 말하는 장면이나, 이장하가 이 말을 믿고 그대로 행동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영화적 서프라이즈를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긴장감이나 긴박감이 없었다. 실제 결말에 독립군이 등장했을 때는 의아하기까지 하다. 극소수의 인원으로 일본 군영을 대낮에 습격하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 설정이다. 무엇보다 일본군이 왜 만주까지 추격하는지 영화상로는 이해하기 어려웠다. 작가와 감독은 평민들이 독립군이 되어 일본군을 물리친 것이 봉오동전투라고 말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영화의 설정과 전개는 다수의 일제군을 무찌르는 '전략'이 돋보이게 했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영화적 리듬이 살아 있어야 했다.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흘러야 했다. 그러나 <봉오동전투>는 봉오동전투를 재현하고 있지만 전투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모르겠다. 즉 원인과 결과, 전개 과정이 한 눈에 들어오지 않으니 영화적 리듬이 형성되지 않았던 것이다.



키워드로 보는 코로나 소통법

'상상 코로나'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는가.

가벼운 재채기나 두통 증상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하 코로나19)을 의심하는 증세를 뜻하는 단어다.

서로 마주하지 않는 비대면 방식이 확산되면서부터는 '언택트'라는 말도 생겨났다.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갖가지 신종 언어들이 출몰하고 있다.

이 시대, 코로나 신조어

지난 1월 창궐한 코로나19 사태가 심각 단계에 접어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 지 두 달여 가량 지났다. 어느덧 확산세가 주춤하면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단계가 전환됐으며, 일상을 되찾기 위한 국민들의 노력은 여전하다.

감염 관리 방책의 일환인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는 말 그대로 2m 이상 거리두기를 실천해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고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캠페인이다. 20대는 코로나19와 관련해 가장 공감 가는 신조어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꼽기도 했다. 캠페인을 시행한 후 어느 회사 구내식당에서는 칸막이를 치고 식사하는 진풍경이 연출됐으며, 네일숍에는 네일아티스트와 손님 사이에 설치하는 칸막이가 등장하기도 했다.

코로나19 사태를 헤쳐 나가며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겼을까. 온라인을 위주로 루머나 농담도 떠돌았다. "요즘 먹기만 했더니 확찐자로 판명 났어", "나도 집에만 있었더니 확찐자 됐잖아" 등 '확찐자'라는 신조어가 생겨났다. 넘쳐나는 마스크 수요를 충족하지 못해 요일별 구매를 유도했을 땐 마스크가 금(金)처럼 귀하다는 의미에서 '금스크'라는 말이 생겨났다. 또 외출이 줄어든 가정에서는 밥 먹고 돌아서니 또 밥을 지어야 하는 주부를 두고 지어진 '돌밥돌밥', 자가격리되면서 몸과 마음이 작아지고 있다는 뜻의 '작아격리' 등의 말도 등장했다.

변화에 따른 새로운 단어들은 속속 생겨났다.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경제는 여전히 불안하고 국민들의 불안감 또한 높은 상황이지만, 유행하고 있는 신조어와 트렌드를 잘 분석하면 그 안에서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유행을 좇는 사람들의 심리를 유추해 위기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또 경제 및 소비 흐름을 분석할 수 있으며, 이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된 후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를 대하는 말·말·말

● 언택트 라이프

1인 가구의 증가로 생겨난 언택트 문화, 즉 비대면 문화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언택트[contact]'에 부정적 의미의 접두사인 '언(un)'을 합성한 신조어로, 만남이나 서비스 이용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비자들은 외출을 자제하고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고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며 일상을 보낸다. 동시에 배달 및 온라인 매출이 증가 추세다. 이러한 분위기는 기업에 영향을 미쳐 온라인 면접 및 온라인 시험도 시행되고 있다.

● 코로나블루

'코로나블루'는 '코로나'와 우울한 마음을 뜻하는 '블루(blue)'를 합성한 말이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사회활동이 줄면서 고립감과 답답함을 느끼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확진자 뿐만 아니라 확진자 가족 및 격리자, 주변 사람까지 우울증을 겪는 현상을 말한다. 심지어 몇 달째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는 초등학생들도 우울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코로나블루는 의학적 질병이라기보다 사회 현상에 따른 심리적 증상이지만, 이런 심리적 압박이 신체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안, 어지러움, 소화 불량, 답답함 등의 증세를 동반한다.

● 코로노미 쇼크

'코로나'와 '이코노미(Economy)'의 합성어로 만들어진 '코로노미 쇼크'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의미한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소비심리 위축, 생활고 증가, 취약계층의 생활고가 가중되는 등 경제 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사람들의 외출이 급격히 줄고 이에 따라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매출이 감소하며 지역 경제가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이에 정부는 위축된 경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원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 부머 리무버

'부머 리무버'란 해외에서 생겨난 신조어로, 코로나19로 인한 고령 사망률이 높은 사회 현상을 의미한다. 베이비부머 세대를 지칭하는 '부머[boomer]'와 없앤다는 뜻의 '리무버[remover]'가 합쳐졌다. 베이비부머 세대란 1946년에서 1964년에 태어난 연령층으로 코로나19에 취약한 계층이다. 부머 리무버라는 말에는 고령자들이 코로나19에 취약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지만, 코로나19에 대한 심각성을 무시하는 기득권층에 대한 조롱도 함께 포함돼 있다. 미국에서는 이 같은 표현이 SNS 상에서 유행처럼 퍼지면서 기성세대와의 갈등을 조장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결혼 39년 만에 처음 받아본 꽃바구니

지난 1월 18일은 결혼 39주년 기념일이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우리 부부는 벌써 강산이 네 번이나 바뀌는 세월을 함께 살아온 셈이다. 정말 믿어지지 않는 세월이며, 지난간 화살처럼 빠른 것 같다. 요즘은 여성들도 서른 넘어 시집가는 시절인데, 나는 스물네 살의 젊은 나이에 4남 2녀 6남매의 가정에 시집와서 술한 어려움과 역경을 보냈다. 하지만 늘 따뜻하고 자상하게 대해 주고 정의롭게 양심적으로 살아가려는 남편이 있었기에 마음만은 푸근한 부자로 살 아왔다. 이제 서른일곱 살 된 딸과 서른여섯 살 된 아들이 그 세월을 입증해 주고 있지 아니한가.

남편은 40년 전 직장에 다니면서 사귀게 됐다. 1년의 연애 끝에 부모님의 강하고 거친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했다. 셋째 며느리로 들어왔지만 집안 사정으로 인해 맏며느리에 가깝게 각종 집안일을 처리해야 했다. 첫째 형님은 멀리 서울에 산답시고 집안의 대소사에 별로 관심이 없었고, 둘째 형님은 건강이 좋지 않았다. 당시 대학생이었던 시동생을 돌보

는 일은 어쩔 수 없이 셋째인 내 몫이 되었고, 시동생은 우리 집에서 학교를 다니며 졸업했다. 은근히 부아가 치밀었지만 어쩌랴. 시가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 생활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으니까. 물론 시부모님께서 농사를 지어 쌀과 농작물을 보내주셨고 시동생의 등록금도 마련해주어 그나마 괜찮았다.

그렇게 살아왔기에 결혼기념일만 되면 은근히 남편에게 무언가를 기대하였으나 허사였다. 그러던 중 남편으로부터 살면서 처음으로 꽃바구니를 선물 받았다. 올해도 ‘응당 그냥 넘어가겠지’ 하고 포기하고 있었는데, 결혼기념일 당일 처음으로 꽃바구니를 선물 받았다. 그때의

기쁨과 흥분, 설렘은 마치 처녀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다. 어떤 여자들은 매년 결혼기념일이나 생일 때마다 흔히 받는 꽃바구니지만 나는 결혼생활 39년 만에 처음이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남편으로부터 꽃을 받아보지 못해 못내 아쉽고 원망스럽기까지 했었는데, 원망을 많이 듣다 보니 귀가 따가웠는지 처음으로 꽃바구니

를 보내주어 눈물까지 흘리며 기뻐했다. 그동안 말로 표현은 안 했지만 화나고 섭섭했다. 다른 사람들은 결혼기념일이면 여행을 간다느니, 고가의 선물을 받았다느니, 분위기 좋은 곳에서 식사라도 한다는데, 여태껏 나는 남편에게서 그 흔한 장미꽃 한 송이 받아보지 못했던 것이 얼마나 한이 맺혔었는지. 어느 해에는 너무 화가 치밀어 올라 남편에게 다그쳐 물었더니, 남편은 마음은 있는데 표현을 하지 못할 뿐이라고 은근 슬쩍하며 넘어가려 했었다. 물론 무뚝뚝하고 애정 표현이 서투르고 무딘 것은 알지만, 그래도 수십 년 동안 단 한 차례도 꽃 한 송이 받아보지 못한 것은 너무 심했던 것 같다.

그런 남편이 결혼 39년 만에 마음이 왜 돌변했든지 몰라도, 올해 들어선 내 소원을 성취시켜 준 것이 아닌가. 남편은 하루 전 꽃 배달 서비스를 신청해 결혼기념일 당일 예쁘고 탐스러운 꽃바구니를 내게 보냈다. ‘그동안 해주지 못했던 걸 화끈하게 해주고 싶었나 보다’ 하고 나름대로 생각하며 감동을 받았다. 꽃바



구니엔 작은 쪽지가 꽂혀 있었다.

“바쁘게 살다 보니 자상하게 챙겨 주지 못한 점 미안하게 생각해. 늘 내 곁에서 내조하며 아이들 뒷바라지하면서도 몸이 불편하신 시어머니께 애썼던 당신. 소중한 날을 맞아 모처럼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어. 말하지 않더라도 이심전심으로 서로 이해하고 열심히 살아가길 바

라. 앞으로 결혼기념일엔 당신이 받고 싶어 하는 꽃을 반드시 챙겨줄게. 영원한 당신의 남편이.”

꽃바구니를 처음 받아서 기쁘고 고마웠는데, 편지를 읽고 나서 결국 눈물까지 흘리고 말았다. ‘무뚝뚝하고 감정 표현 무딘 남편한테도 이런 다정다감하고 따뜻한 면이 있었구나’ 생각하니 괜스레

판다곰에서 시작된 이야기

눈탱이가 밤랭이 라는 표현이 있다. 몇 년 전 지인이 만남의 장소에 한쪽 눈이 그렇게 된 모습으로 나타났다. 모두 놀라는 표정이 되어 “부부 싸움이라도 했나”고 농담 반 걱정 반, 궁금증 반으로 묻는다. 친구는 질문에 난처해하며 사연을 이야기한다.

며칠 전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내려가다가 계단에 구두 굽이 걸려 넘어졌는데, 통증만 약간 있어 병원에서도 큰 치료 없이 넘어갔다고 했다. 그런데 다음날부

터 서서히 눈두덩이 색이 변하더니 판다곰이 되었다 한다. 그 단어를 말하기도 전에 자연스레 판다곰이 떠올라 모두 또한 웃었다. 머리를 부딪쳤지만 가까이 있는 시신경이 섬세해 그렇게 반응이 나타난다는 의사의 말을 전한다. 명이 드는 것도 생각보다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몰랐던 사실이다.

이야기 끝에 그날 일을 계기로 외출할 땐 전보다 집안을 더 정리하고 나간다고 했다. 전 같으면 다녀와서 해야지 했던 마음이 바뀐 것이다. 이번 일로 인해 자신의 부재가 생긴 뒤 집안 풍경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했다. 잠시 전 까지도 걱정 반 웃음 반이었던 일행들도 그 말에 수긍하며 진지해지기까지 했다.

가끔 생각나는 지인 이야기를 또 한 번 확인하는 사연을 들었다. 젊은 소방관이 회식 후 독신인 선배의 집에서 하루를 묵은 날이다. 출근하는 아침, 전날 회식으로 늦잠 잔 후라 둘 다 평소보다 더 분주했다. 그런 바쁜 중에도 선배 소방관이 집안을 계속 정리하는 모습이 의아하게까지 했다.

궁금해서 묻자 상사는 “불의의 사고가 많은 직업이라, 내가 혹시 오늘 집에 들어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만약 연락을 받은 부모님이 병원과 나의 집에 오셨을 때 집안까지 심란하다면 마음이 더 아프실 것 같아서”라고 답했다. 지인보다 더 마음을 울리는 소방관 이야기이다. 직장인이 된 세 아이의 부모 입장이라 그런지 대답을 듣는 순간 마음이 멈칫했다.

그런 중에 어느 날 역사강좌를 통해 모르던 이야기를 하나 더 접했다. 강사는 독립군들이 남긴 사진을 보면 대부분 몸에

꼭 맞는 단정한 정장이 눈에 띈다고 했다. 쉽게 비유를 들어주는 그 당시를 다른 영화 <밀정>, <암살> 등에 나오는 배역들의 옷차림이 그랬다. 정기구독하고 있는 월간 「독립기념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다. 독립군의 당시 독사진, 단체사진, 가족사진들은 흔치 않아 유심히 보곤 했다. 그럴 때면 모든 면으로 힘들던 시기에 옷차림과 자세가 항상 단정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다. 당시로서는 흔치 않은 귀한 사진 찍는 날이라, 혹은 지도자나 선생님 위치라 그럴까 하는 생각을 갖기도 했었다.

이번 강좌를 들으며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주어진 하루가 마지막 하루라는 생각으로 반듯한 마음과 옷차림을 유지하며 후에 독립군 후배들과 남은 이들에게도 좋은 모습을 남기려 하는 마음이었다고 한다. 이제야 「독립기념관」에서 보던 사진 속 독립군들의 단정한 옷차림에 대한 궁금증이 풀렸다. 위 이야기들이

갖는 진중한 마음이기도 하지만 독립군들의 좀 더 깊은 마음까지는 헤아려보지 못했었다.

두 지인의 이야기를 통해 ‘아름다운 사람은 머물렀던 자리도 아름답습니다’라는 문구가 떠오른다. 더불어 독립군의 이야기에서는 백범 김구가 남긴 문구를 떠올리게 한다. ‘눈길을 걸을 때 흐트러

지게 걸지 마라. 내가 걷는 밭자국이 뒤에 오는 이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



01

대한인국민회총회관 소장 자료 공개 행사 개최

6월 3일 독립기념관 밝은누리관 강당에서 지난 2019년 11월에 한국으로 이관된 대한인국민회총회관 소장 자료 공개 행사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2월 14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잠정 연기된 바 있다.

2003년 대한인국민회총회관 복원 과정에서 발굴된 자료들은『신한민보』관련 자료, 대형태극기 및 대한인국민회총회관 현판 등 유물, 대한인국민회 공문서(독립의연금 영수증 및 장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2011년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의 현지 실사를 통해 파악된 이 자료들은 곧바로 한국으로 오지 못했고, 자료 발굴과 이관 협의가 진행된 지 20여 년 만인 지난 2019년 11월 한국으로 돌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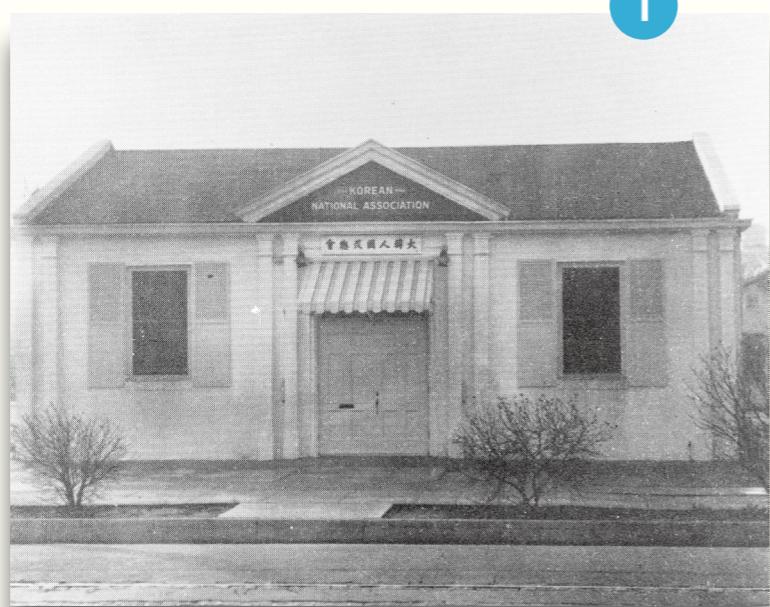
대한인국민회는 해외 거주 한인들의 안식처가 되기 위해 두 차례의 합동을 거쳐 수립되었다. 1차로 1909년 2월 10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하와이의 합성협회, 샌프란시스코의 공립협회가 '국민회'라는

이름으로 통합된 뒤, 2차인 1910년 샌프란시스코에서 활동했던 대동보국회까지 통합하며 1910년 5월 '대한인국민회'를 출범시켰다.

대한인국민회는 「대한인국민회 헌장」을 통해 "교육과 실업이 진발하여 자유와 평등을 제창하여 동포의 명예를 증진케 하며 조국의 독립을 광복케 함"을 목표로 했다. 이는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 발족과 함께 대한인국민회가 국내외를 막론한 한인 최초의 국민국가에 바탕한 임시정부임을 선언한 것이었다. 실제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는 북미·하와이·시베리아·만주 등 4개 저지방총회를 두고 지방총회 산하에 멕시코·쿠바 지역을 포함한 총 116개 저지방회를 둔 거대 조직으로 민주주의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조직을 운영했다.

각 저지방회를 두고 운영된 대한인국민회는 각 저지방회에서 의연금을 모아 독립운동가들의 활동 자금을 제공했다. 대한인국민회는 위와 같은 재정적인 지원 이외에도 제2차 세계대전기 일본인으로 몰려 고통받는 한인들의 신원을 보장해주는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인 한국 독립운동사에서 근간이 되는 중요한 단체였다. 해방 이후 대한인국민회는 교민단체로 변모했고, 중요한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1974년 해산 이후 우리의 기억에서 잠시 멀어지게 되었다.

이번 공개행사를 통해 다시 한 번 독립운동에 목숨을 바친 영웅들을 불러내는 장이 되었으면 한다.



1

① 1938년 대한인국민회총회관(소장 자료가 발굴된 곳)

대한인국민회총회관은 1938년 12월 20일 현재 위치(1368 W Jefferson Blvd, L.A.)에 신축되었다. 대한인국민회 성립 이후 북미지방총회의 중심이었던 샌프란시스코에서 LA로 옮기게 된 것은 1936년 4월 2일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총회관에서 발생한 화재였다. 북미지방총회는 7월 4일 특별대위원회를 개최하고 화재로 인한 피해 및 미주 한인사회의 본거지가 점차 LA로 이동함에 따라 북미지방총회를 LA로 옮기고 총회관을 신축하기로 결의했다. 총회관 건축위원장으로는 송현주가 선임되었고, 1937년 5월 현 위치 토지를 매수하고 건축에 착수했다. 1937년 12월 20일부터 현 위치의 총회관으로 옮겨 사무를 보기 시작했으며 1938년 4월 17일 낙성식을 거행했다. 현재는 대한인국민회기념재단 사무실로 대한인국민회 및 미주 이민 관련 전시관도 갖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2

②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대한인국민회 북미중앙총회 관허장

1914년 4월 6일에 대한인국민회지방총회를 캘리포니아 주에 등기된 사단법인으로 허가된다는 관허장이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로부터 사단법인으로 관허를 받은 대한인국민회 북미지방총회는 주법의 테두리 안에서 회원들의 안녕과 비영리적 공익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3-1 ◎ 의무금 증서



3-2 ◎ 독립의연금 영수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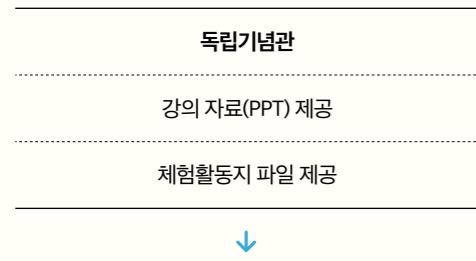
02

독립군 체험학습자료 신청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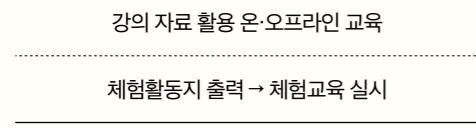
개요

체험활동	
구분	강의 자료
초등	실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립군 이야기 강의 자료 독립군 네컷 만화 그리기 독립군 빙고 게임 야외 <p>독립군 운동회</p>
중등	실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립전쟁 이야기 속으로 강의 자료 독립군 네컷 만화 그리기 독립군 보드 게임

활용 방법



신청 학교



독립기념관은 코로나-19 위기대응과 봉오동·청산리전투 100주년을 기념하여 학교 현장에서 체험 교육이 가능한 '독립군 체험학습자료'를 개발하여 무료로 제공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초등용 체험학습자료



중등용 체험학습자료



● 독립전쟁 이야기 속으로
역사 강의

사람들이었을까?

러나를 지향기 위해 군대를 조직하여
전투를 했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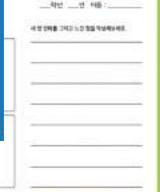


입을 헤아려 전투에 투신한 사람들은
제일 먼저 전투에 투신한 사람입니다.

● 독립군 네컷 만화 그리기
(실내 체험활동)



● 독립군 네컷 만화 그리기
(실내 체험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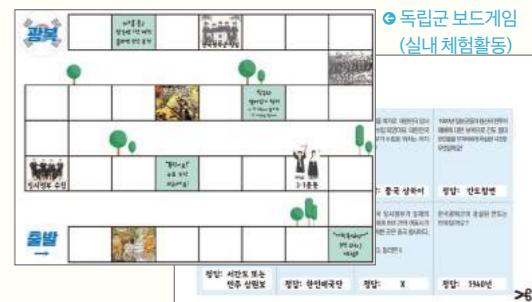


신청 방법

기간: 2020. 6. 1.(월) ~ 10. 30.(금)

- 독립기념관 홈페이지 회원 가입(www.i815.or.kr)
- 교육행사 → 교육프로그램 신청 → '독립군 체험학습자료' 제공 신청
- 교육생 명단을 포함한 공문 제출
- 독립기념관 → 신청 교사 이메일로 체험학습자료 송부

※ 문의: 독립군체험학교(041-560-0259)



● 독립군 빙고 활동지
(실내 체험활동)

● 독립군 보드게임
(실내 체험활동)

강의 자료 활용 온·오프라인 교육

체험활동지 출력 → 체험교육 실시



● 독립군 운동회
(야외 체험활동)

● 독립군 운동회
(야외 체험활동)

03

내 손안의 독도

독립기념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 방침에 따라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독도의 역사와 자연을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가족교육을 제공합니다. 독립기념관 홈페이지 교육신청에서 무료 온라인교육을 신청해보세요. 인스타그램을 통해 독도의 역사, 자연 교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개요

	내 손안의 독도 3차	내 손안의 독도 4차
일시	6. 17.~18.(수~목) 10:00~18:00	6. 24.~25.(수~목) 10:00~18:00
주제	- 독도가 우리 땅인 역사적 증거(근대이후) - 독도의 자연 - 전시관 탐방(2전시관)	- 독도지킴이 이야기(안용복) - 독도가 우리 땅인 역사적 증거 - 독도의 자연
대상	초등 고학년 포함 가족	초등 저학년 포함 가족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	6. 17.(수) 오후 4시	6. 24.(수) 오후 4시
접수 기간	6. 2.(화) ~ 교육 전날(화) 16:00까지	

신청 방법

- ① 독립기념관 홈페이지(www.i815.or.kr) 회원가입
- ② 교육·행사 → 교육프로그램 신청 → 내 손안의 독도 신청
※ 학부모 포함 2인 이상 신청 권장
- ③ '내 손안의 독도'는 인스타그램을 활용한 모바일 교육으로,
참가자가 문자로 사전 안내된 교육계정을 팔로우 후 교육 참여
- ④ 6.17(3차), 6.24(4차) 오후 4시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으로
출석 체크 및 독도 지식 점검
※ 우수 참가자 5가족 선정하여 독도 자연체험 키트,
독도의 역사이야기 교재 증정



※ 문의: 교육부 유서현 학예연구사(041-560-0265)

04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국군병사 휴가프로그램 이용 안내

독립기념관은 국방부와 업무 협의를 통해 국군병사들의 나라 사랑 정신 함양과 역사의식 고취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휴가 중 독립기념관을 방문한 국군병사를 대상으로 추후 1일의 휴가를 보상하는 사항에 관한 안내입니다.

개요

대상	휴가 중인 대한민국 국군병사
접수처	종합안내센터(제2주차장 앞 또는 입구 바닥분수 옆)
이용제한시간	12:00~12:40(내부 소독)
자첨물	휴가증 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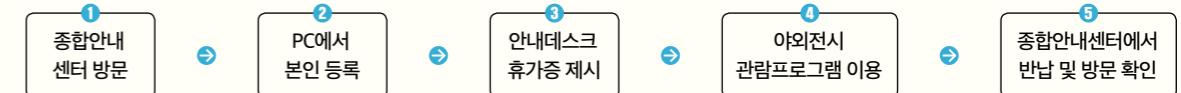
※ 해군·공군은 외출증·외박증 가능
※ 반드시 본인 등록, 대리등록 적발 시 법적처벌

등록시간

절기/요일	동절기(11월~2월/화~일)	하절기(3~10월/화~일)
접수시간	09:30~15:20	09:30~16:20
관람시간	09:30~17:00	09:30~18:00

※ 정기휴관일: 월요일(공휴일인 경우 개관)

휴가프로그램 이용방법



※ 활동시간: 1시간 30분 이상 ※ 프로그램 이용 시 발열 체크 및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사용 등 예방 수칙에 협조 바랍니다.

05

독립기념관 생활 속 거리두기 관람 안내

이용 가능 서비스

- 전시관·홍보관 관람(시간당 관람 인원 제한)
- 캠핑장·솔숲쉼터 등 대관 장소 이용
- 편의점·카페 등 편의시설 이용
- 국군 휴가인증프로그램 참여
- 산책로, 시·어록비 공원 등 야외 시설 이용

미운영 서비스

- 전시관 해설프로그램, 체험관, MR 독립영상관,
북 카페, 유아 놀이방 등 밀집된 내부 공간의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이용이 제한됩니다.

독립기념관 관람안내

관람안내

구분	입장시간	관람시간
동절기 (11월~2월)	09:30 ~ 16:00	09:30 ~ 17:00
하절기 (3~10월)	09:30 ~ 17:00	09:30 ~ 18:00

주차요금

구분	요금	대상
소형	2,000원	25인승 미만
대형	3,000원	25인승 이상
면제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감면	1,000원	국가유공자 가족, 장애인, 경차, 하이브리드 차, 병역이행명문가증 소지자

※ 정기휴관일: 매주 월요일(공휴일인 경우 개관)입니다. 단, 상설전시관 외 야외전시, 쉼터 등은 개방합니다.

일상 돋보기

월간 독립기념관 독자들과 나누고 싶은 소중한 일상이 있다면 언제든 보내주세요.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는 것처럼 추억은 나눌수록 더 오래 기억됩니다.

참여안내

주 제 | 자유
원고분량 | 200자 원고지 12매 이내
※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보내실 곳

E - mail | sunny@i815.or.kr
주 소 | (31232)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독립기념관로1, 월간『독립기념관』담당자 앞

월간 「독립기념관」 무료 구독 신청 방법

전 화 | 041) 560-0244(월간 독립기념관 담당)

E - mail | sunny@i815.or.kr
※ 이름, 주소, 연락처 기재

월간 독립기념관, 이제 웹진으로도 만나보세요.

PC와 모바일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월간 독립기념관을 즐길 수 있습니다.
웹진은 독립기념관 홈페이지(www.i815.or.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실내 다중이용시설’ 및 ‘2m거리 두기가 어려운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 필수

30초 손씻기, 기침은 옷소매

매일 두 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코로나19를 이기는 새로운 일상,
우리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이달의

주요 행사

2020. 06



전시

독립전쟁 100주년 특별전



학술

대한인국민회총회관
소장 자료 공개 행사



교육



문화

가족 독도체험
토요 역사체험

2020.06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대한인국민회총회관 소장 자료 공개 행사	4  ·독립전쟁 100주년 특별전	5	6 <small>현충일</small>
7	8	9	10	11	12	13  ·가족 독도체험
14	15	16	17	18	19	20  ·토요 역사체험
21	22	23	24	25	26	27 <small>6·25전쟁일</small>
28	29	30				